

총수가 한 해임이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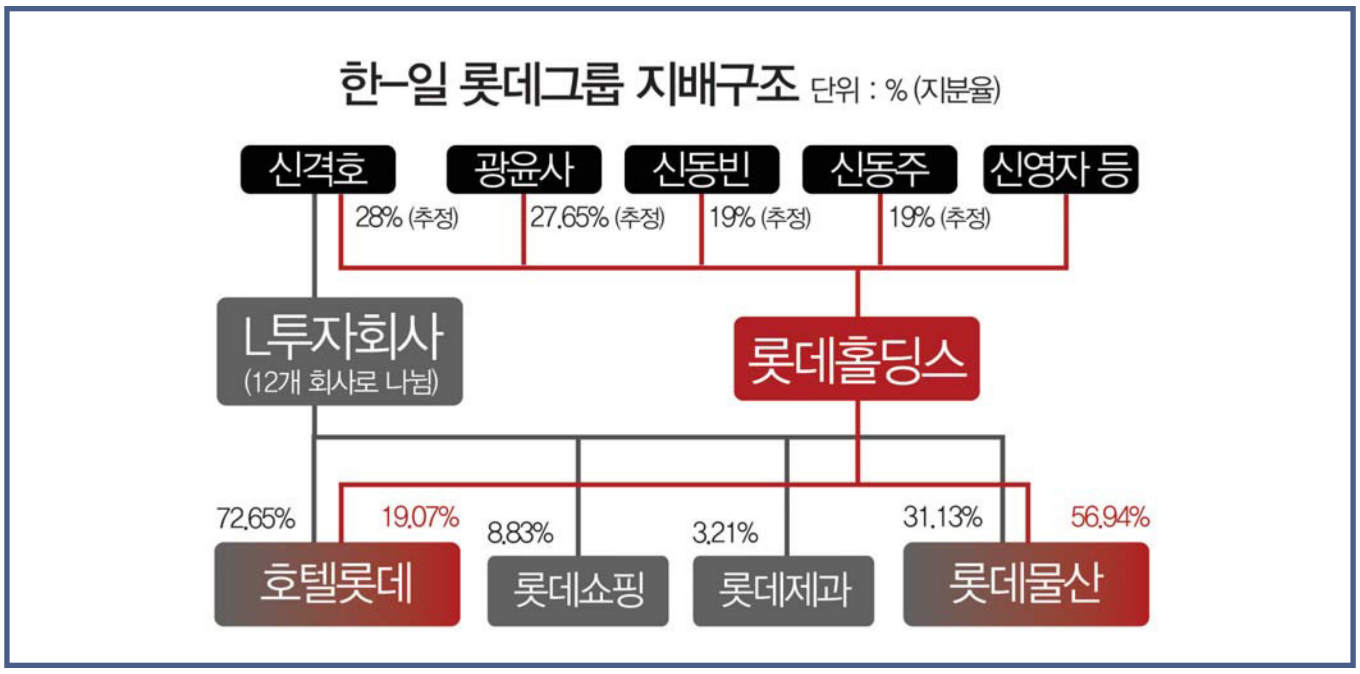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제326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2037.62	(-1.48)
코스닥	730.47	(-14.77)
금리(국고채 3년)	1.73	(+0.03)
환율(원·달러)	1158.30	(-8.20)

왕관이냐 쪽박이냐





롯데홀딩스 곧 주총… 신동빈 이사 해임 추진 가능성
호텔롯데 지분 73%보유 'L투자'도 여전히 신격호 수중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른 바 '왕자의 난'에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현재 롯데가(家)는 '신동빈 vs 신격호+신영자+신동주'로 전선이 형성된 분위기다.

7명으로 구성된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동빈 회장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반면, 주주총회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비상장 상태여서 정확한 지분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지분을 합치면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있다.

주총에서 이사의 해임은 참석주주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격호 총괄회장 등 셋이 합세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롯데를 잇는 또 하나의 통로는 12개로 나뉘어져있는 'L투자회사'다.이 투자회자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다.같은 호텔롯데 주주인 롯데홀딩스(19.07%)보다 훨씬 많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12개 회사 모두에 이사로 등재돼 있고 그 중 9개는 직접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미뤄 실질적으로 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투자회사의 지분내역은 비공개상태이다.

◆신격호·신동주·신영자 vs 신동빈… 승부는 주총에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해임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격호 28%, 신동주 19%, 신동빈 19%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주주회와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장녀 신영자 이사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쪽으로 기울면서 신동빈 회장은 표대결에서 극히 불리해진 상황이다.

주총에서 이사의 해임은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만일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한다면 신 회장이 한국과 일본롯데를 지배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끊어진다.

한-일 롯데를 잇는 통로인 호텔롯데의 지분 대부분은 롯데홀딩스와 12개의 L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29일 현재 오후까지 일본에 머물며 이사와 주주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가 주총에서 밀린다면 지난 반년간의 신동주 전 부회장의 거취가 되레 신 회장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롯데 승계 열쇠 'L투자회사' 여전히 신격호 지배하에

한국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라는 두 개의 지주사에 의해 주인이 결정된다.

일본 법무국에 따르면 총 12개의 L투자회사 중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등기돼 있다. 나머지 3곳(L4·5·6)의 대표는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등기돼 있다.

L투자회사는 2007년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롯데물산·롯데상사·롯데빙과 등의 계열사로부터 분리해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부터 9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본인이 직접 맡아 관장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은 L투자회사 지배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다. 신동주·신동빈 두 형제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애초 이번 사태도 신동주가 아니라 그 이 전에 신동빈 측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7일 신 총괄회장이 큰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간 것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상황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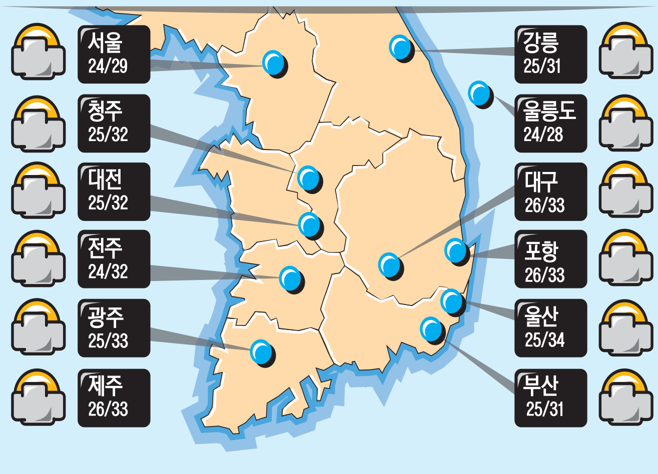
▶관련기사 15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날씨

7/30 목 일출시각 05:34 일몰시각 19:4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경제·산업

▲ 지난 6월 은행권 **정기적금 금리**가 사상 첫 연1%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예금금리 역시 연 1.67%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 메르스 공포감에도 지난 **6월 카드 승인금액**은 50조85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는 종합병원과 여행, 숙박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감소했다.

▲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연립·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1.2%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7월(8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개최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로 맡겨진 주식'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내부 규정까지 새로 만들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삼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다음달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이 전국에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는 40곳 2만5010가구다.

▲ 농업형 '창조경제' 아이콘인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이 추진된다. SK텔레콤은 29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9개사와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LG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13조9257억원, 영업이익 2441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시장수요 침체, 환율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60%, 전분기 대비 20% 각각 하락했다.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노동조합(위원장 이항주)은 올해 임금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사 측에 위임한다고 29일 밝혔다. 20일 울산공장에 이어 여수공장도 위임을 결정함으로써 한화케미칼은 올해 여수와 울산 등 모든 공장의 노조와 노사 간 대승적 차원의 타협을 이루게 됐다.

▲ 국내 롯데의 지주사인 호텔롯데의 72.65%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최대주주 **'L투자회사'**가 신격호 총괄회장 손 안에 있어 신 회장에 반기를 든 신동빈 회장의 그룹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해임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세탁 세제** 시장이 분말에서 액체로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AC 닐슨에 따르면 액체세제는 2012년 31%에서 올 상반기 45%로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사회

▲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 한미 합동실무단은 다음달 6일 사고 현장인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례적으로 언론에도 현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 뉴욕주재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은 자유국가로서 하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가 떠오르는 시장이라며 새로운 **천연물 신약** 개발 사업을 벌였지만 지난 14년동안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의 **리솜리조트** 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부품의 결함으로 공급이 중단된 엉터리 명품소총 **K-11**를 내년 말까지 대폭 개량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하고 2억원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수배 중이던 주범 노모씨(3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2010년 865명에서 2011년 2029명, 2012년 7746명, 2014년 818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악재로 2분기 3조319억 적자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공기 지연으로 3조원 넘는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3조3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 앞에 설치된 '빅 블루'. '빅블루'는 대우조선해양의 공식 캐릭터인 흰수염고래의 이름이다. /연합뉴스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한국, 독일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수요를 강화하라고 3국에 촉구했다.

▲ '검은 월요일'을 겪은 **중국 증시**가 전날 하락세가 주춤한 데 이어 다시 전날보다 3.44% 오른 3789.17로 마감했다.

▲ **중국 큰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대상이 호주, 미국 등에 이어 아시아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지가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 일본이 **시급**을 현재보다 평균 18엔(약 169원) 올린 798엔(약 7500원)으로 정해 현재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노사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대폭 인상' 의지로 4년째 두자릿수 인상폭이 유지됐다.

▲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와 세계 최대의 종합전기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배터리 경쟁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짐바브웨의 명물 사자 **'세실'**이 목이 잘린 채 발견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범인인 미국 치과의사는 자신의 사냥은 합법이며 사냥이 끝날 때까지 죽인 사자가 현지 명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막말에도 불구하고 돌풍 행진 중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 변호사까지 "부부 사이에 성폭행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트럼프와는 달리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8월 6일은 '양대 의혹' 규명의 날

'탄저균' 주한미군, 언론에도 현장공개
'해킹' 국정원 "전문가에게 설명만 가능"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 해킹 문제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공교롭게도 조사일이 6일로 겹치게 됐다.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4명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 4명은 다음달 3일까지 여야 추천을 받아 신원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원 중에서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일단 일정과 인원 규모는 확정했지만 간담회에서 다룰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미리 봐야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이 (간담회 개최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민간인에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국정원이 정보기관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해 온 여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서 들어보면 이해를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앞)이 29일 야당 의원들의 국정원 임모 과장 자살 사건 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숨진 임과장에게 의혹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에 따르면 자살한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남긴 로그파일의 양은 6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국정원은 프린트가 아닌 스크린상에서 로그파일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런 식으로는 의혹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하면 조금 더 밝혀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합동 실무단은 다음달 6일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와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오산기지 현장 조사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미국측 인원이 당시 실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한다. 실무단은 현장기술평가팀이 나서 전 과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완료 후 언론에도 생물검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탄저균 문제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파장이 인 사안이다. 주한미군 측이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분석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서울·경기, 화재·교통 안전지수 1등급

국민안전처가 처음 공개한 지역 안전지수 등급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화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29일 2013년 화재·교통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역안전지수란 안전에 관한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후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상대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의 비중을 가장 높게 반영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광역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부천시, 수원시, 부산 기장군, 충북 증평군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화재와 교통사고 모두 2등급이었고 서초구는 화재 2등급, 교통사고 3등급을 받았다.

안전처는 오는 10월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감염병, 자살,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



국민안전처가 시범공개한 전국 시·도와 시·군·구별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 평가. /국민안전처 제공

38노스 "북한 로켓발사장 증개축 완료"

발사준비신호로 단정 못 해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최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올해 봄부터 진행돼온 발사대 주변의 증·개축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38노스는 로켓 부품을 발사대로 운반하는 이동식 지원 플랫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길이 24m, 넓이 30m, 높이 33m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사대 끝의 새로운 발사지원건물을 짓는 공사도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38노스는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준비에 들어간 신호로 공식 단정하지는 않았다.

38노스는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논평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장거리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발사준비가 진행중이라면 앞으로 수주내에 궤도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미사일과 관련한 기동차의 도착, 로켓 제조 관련 움직임, 발사대와 연관된 산화제와 연료탱크의 충전, 발사를 추적하는 거리측정 레이더 활동, 발사를 지켜볼 주요 방문객들의 도착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원 기자

한국마사회 조직적 탈세 의혹

참여연대 국세청에 신고

용산화상경마장 강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마사회에 대해 조직적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화상경마장의 입장료는 2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 182원으로 같다"며 "마사회의 대규모 조직적 탈루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가 2013년 전국의 화상경마장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고 입장료를 인상했으나 이에 따른 세금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2000원권과 3만원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마사회 탈세의혹 국세청에 신고. /연합뉴스

마사회는 이에 대해 입장권 2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납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면 입장권에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용산화상경마장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용산세무서의 경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마권판매로 7조6464억을 벌어들였으나 여신전문금융법 2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결제하면서 소득탈루와 탈세 우려가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일본 시급 7500원… 사상 최대 인상

4년 연속 두자릿수 올라
아베 정권 '대폭 인상' 의지

일본이 시급을 현재보다 평균 18 엔(약 169원) 올린 798 엔(약 7500원)으로 정했다. 현재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이날 2015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과 관련해 전국의 평균 시급을 현재보다 18 엔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인상폭 16 엔보다 2 엔 늘린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경기의 회복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대폭 인상에 적극적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4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별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인상폭 기준을 제시한다. 올해 인상폭 기준은 16~19 엔이다. 각 지자체 심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협의를 거쳐 10월쯤 인상안을 적용한다.

일본의 광역지자체는 경제규모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로 인상폭이 다르다. 도쿄 등의 A등급은 19 엔, 시즈오카 등 B등급은 18 엔, 오카야마 등 C등급과 아오모리 등 D등급은 16 엔이다.

B, C, D 등급의 인상폭은 2002년 이후 최대이다. A등급인 도쿄와 가나가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900 엔대가 됐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급 결정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이 있었다.

근로자 측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2015년 춘투에서 대기업 인상률이 2%를 넘은 점 등을 들며 20 엔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대폭 인상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한다며 지난해 16 엔 인상을 넘는 증액에 반대했다. 양 측은 전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상 폭은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내각에서 결정한 성장전략에 과거 2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인상 방침을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대폭 인상을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두르도록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각료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최저임금 수입이 생활보호 급부 수준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노동 의욕을 잃게 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테슬라 대 GE' 전기차배터리 경쟁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모터스와 세계 최대의 종합전기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배터리 경쟁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배터리와 충전소는 전기차 보급의 관건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자매지인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두 업체 간 한판 승부를 소개했다. 이틀 전 GE가 배터리분야 투자확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배런스는 관료주의적인 GE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GE는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향후 5년 시장 규모가 현재의 4배정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였다.

앞서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4~5월 네바다주 리노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추가 매입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규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다. 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확장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다.

역시 향후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돼 충전소용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두 업체 간 경쟁은 승자가 누구냐를 떠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제너럴일렉트릭(GE) 건물 앞에는 30분 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범용신속충전기 4대를 포함해 모두 6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방공공기관 20곳 → 8곳 통폐합

재정절감 연간 202억원

전국 지방공공기관 20곳이 8곳으로 통폐합된다. 이번 구조개혁으로 연간 202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은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관 내 '군살' 조직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자치부

행자부는 이번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을 절감하고, 기관 간 기능조정과 기관 인력감축으로 각각 21억원과 71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檢 '조현아 청탁 의혹' 한진 압수수색

'구치소 편의' 뒷거래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번엔 '구치소 편의청탁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 연관 있는 ㈜한진그룹을 이달 들어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에 속한 계열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모(51)씨 자택과 ㈜한진 임원 서모(66)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씨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염씨가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염씨를 체포해 지난 26일 구속했으며 ㈜한진 관계자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염씨가 실제로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염씨는 1997년 8월 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대한항공 간부에게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인물로 전해졌다.

괌 추락사고는 탑승자 2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염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다. 염씨는 1997년 9월 6일 사고발생 한달만에 발족한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괌 사고 유족 43명은 염씨 등 위원회 간부들과 대한항공 심모 부사장 등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씨는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염씨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문희상(7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헌재법 제 68조 1항' 25년간 위헌 판결 전무

헌법소원청구 215차례, 대부분 각하
오늘 판결 '성공보수 무효' 운명 달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지난 25년간 200여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청구 자격·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심판대에 오르지 못한 경우였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68조 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총 215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동조항만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168건, 나머지 47건은 또 다른 법령과 함께 제기한 경우다.

일부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25년 여간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이 주된 이유였다.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위헌 심판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송달문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들 대부분이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위헌확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각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심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헌재법은 제25조 3항 '대리인'과 제72조 3항 3호 '사건 심사' 항목을 근거로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헌재 측 보정명령을 송달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제기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례도 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실제 법령에 의한 피해가 명확하다고 해도 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소원은 금지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일 68조 1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또 다른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셈이 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 해당 변호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올 확률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변협의 청구가 심판대에 오를 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자격과 조건 중 겨우 한 가지가 제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박기춘 "구차한 변명 않겠다" 금품수수 인정

檢, 대가성 여부 집중 추궁

박기춘(59·남양주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박 의원은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가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측근인 경기도의회 의원출신의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인지, 사업상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했다.

이와 함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의 유착 여부,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과의 관련성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무엇인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품의 속성과 박 의원이 조사에 응하는 태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 의원인 만큼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미란 기자



원주 '평화의 소녀상' 원주 평화의 소녀상이 29일 강원 원주시청 공원에 설치됐다. 광복 70주년 기념 원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문덕·박순조·장응렬·서재일·송금의·김금주)는 8월 15일 오후 2시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한다. /연합뉴스

메르스 피해로 618억 긴급금융지원

신용대출 건당 평균 1400만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극복을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긴급금융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다양한 업종에 건당 평균 1400만원 정도로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사태 후 새마을금고와 함께 시행한 긴급 금융지원 금액이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1804건 이뤄졌으며 액수로는 618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2일부터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평균금리를 2% 인하했다.

특히 경기 화성과 평택,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홍보에도 주력했다.

이번 긴급금융지원은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회원 예탁금 등 새마을금고의 자체 자금으로 이뤄졌으며 신용대출과 채무상환 유예가 주를 이뤘다.

지원 대상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4등급 이하가 많았다.

지원대상을 신용등급별로 분석한 결과 5등급이 20%, 4등급이 18% 정도였고 7등급도 5%를 차지했다.

지원업종별로는 동네학원, 요식업, 여행사, 소매업, 개인택시, 이벤트사, 소형유통업 등 다양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46.5%로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북(26.6%), 경기(9.4%), 부산(6.2%), 서울(5.1%) 순이었다.

주요 피해 지역인 경기 화성과 평택, 전북 순창에선 대출 신청자 중 85%에 지원이 이뤄졌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음식점 허가받은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 불가피

철거 처분 부당하지만
식품위생법 업태 위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밤과 음악 사이' 무대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밤과 음악 사이는 추억의 댄스음악을 틀어주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술집으로 일부 영업점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가 돼왔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상 관할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2013년 9월 밤과 음악사이 건대점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구청은 일반음식점에 맞도록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밤과 음악사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미란 기자



29일 세종시 조치원 세종센터에서 열린 스마트팜 전국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최길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왼쪽 여섯 번째), 민연태 농림부 창조농식품정책관(왼쪽 다섯 번째), 권송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왼쪽 일곱 번째) 등 관련 구성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T '스마트팜' 확산 앞장

세종혁신센터·농업ICT 기업과 MOU

농업형 '창조경제' 아이콘인 지능형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이 추진된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세종센터)와 SK텔레콤 그리고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 9개사는 세종시 조치원 세종센터에서 '스마트팜'의 전국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 ICT 전문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마트팜 장비 제조사(나래트랜드, 다이시스), 스마트팜 영업과 설치기업(일신화학공업, 맥스포 등), SK플래닛 등이 있다.

SK텔레콤은 농가별 스마트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제품군을 다변화한다. 현재 창조마을에 적용된 스마트팜은 국내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비닐하우스형이다. 이에 더해 일반 밭(노지)에 적용 가능한 저가형 제품과 대규모 온실을 위한 복합환경 제어형 등을 올 3분기 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의 적용 대상도 기존 농업에서 소·돼지·양계·양식 등으로 확대해 업종별 농가의 요구사항에 수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농업 ICT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에게 ICT인프라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스마트팜 환경 고도화에 나선다. 스마트팜에서 집적되는 생장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DB) 인프라를 장비제조사인 나래트랜드와 다이시스에게 우선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빅데이터를 통한 첨단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신(新)농사직설'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센터와 SK텔레콤은 살기좋은 ICT 기반의 '창조마을' 조성과 유통·체험관광 등 6차 산업 견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또 ICT를 활용한 농촌마을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 기존 김포·완주·세종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한 행복ICT와 협업할 예정이다. 농사펀드를 통해 직거래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이 선보인 스마트로봇을 이용한 로봇코딩 스쿨 등 스마트 러닝 솔루션과 독거노인 케어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재난 안내 시스템 등의 안전·안심 서비스를 창조마을에 적용한다. 그리고 농사에 중요한 날씨정보를 SK플래닛과 협업해 농장별 맞춤형 기상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대상 창조마을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종센터와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등이 참여해 생산·관광·유통 등이 결합된 창조형 농촌마을을 구현하기 위한 ICT 솔루션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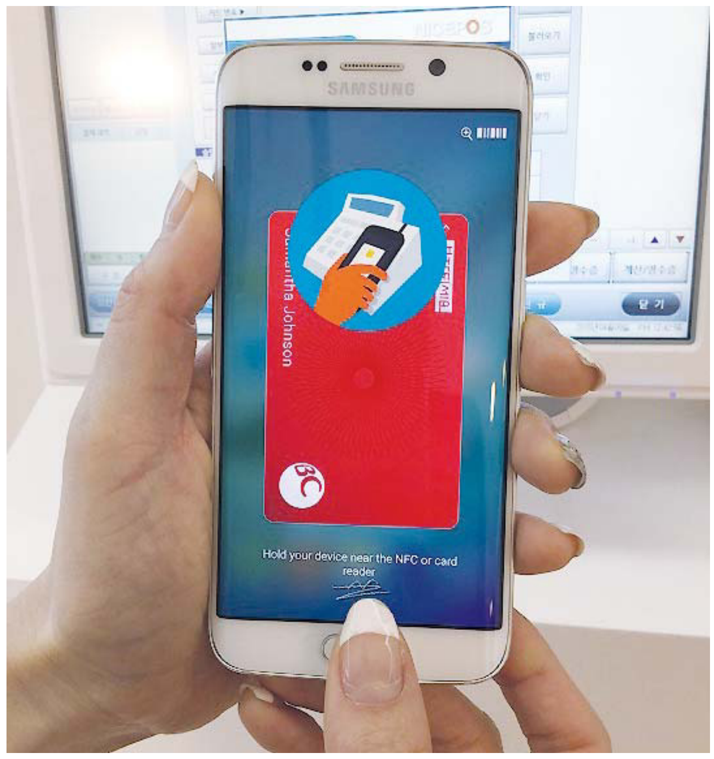
권송 SK텔레콤 기업솔루션부문장은 "세종시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에서도 확인했듯이 농업분야에 도입한 최신 ICT 기술의 효과는 매우 크다"며 "국내 적용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길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은 "농업을 테마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농업 ICT 산업이 발전하는 데 센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

'삼성페이' 대중화 의지 없나?

보급형 폰에 지원 안해 사용자 확보 영향 우려



달아오르고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다.

29일 현재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에는 다음카카오 '카카오페이', SK플래닛 '시럽페이', 네이버 '네이버페이', LG유플러스 '페이나우', 신세계 'SSG페이' 등이 경쟁하고 있다. 다음달 초엔 NHN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 9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출시된다.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의 대결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등 플래그십 모델 두 가지 뿐이다.

하지만 '갤럭시S6' 시리즈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해 삼성페이의 실 사용자 확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홍콩의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S6'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량은 출시 첫 달 '아이폰6' 시리즈에 밀렸다. 지난달에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는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갤럭시S6' 시리즈를 따돌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저가형 단말기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보급형 스마트폰에 삼성페이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

'갤럭시S6' 시리즈 이후 출시된 '갤럭시 A8', '갤럭시 J5', '갤럭시 폴더' 등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은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나우', 'SSG페이' 등이 웹을 통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삼성페이는 단말기 속에 탑재된 하드웨어가 필수다. 이 때문에 삼성페이의 보급은 해당 기능을 들어간 단말기 판매량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과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 삼성전자가 루프페이를 인수하면서 따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현재 설치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MST 방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페이는 범용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범용성이라는 무기를 가졌지만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급형 스마트폰의 삼성페이 탑재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에는 탑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삼성페이 베타테스트가 진행 중이지만 신세계 계열, SPC 계열, 기타 가맹점에서는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유통망, 파트너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결제가 불가능한 매장이 공식적으로 서비스 시작 후에도 (결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6월 은행권 가계대출 8조2000억 늘었다

연체율은 0.19%p 줄어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연체율은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큰폭으로 하락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8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달 전보다 8조5000억원(0.7%) 줄어든 규모다.

6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0조5000원 감소한 526조원으로 나왔다.

단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18조7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8조2000억원 늘어난다.

같은기간 대기업 대출은 179조4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한 553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말(0.80%) 대비 0.19%p 하락했다.

은행의 부실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4조원)가 신규연체 발생액(1조5000억원)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말(1.03%) 대비 0.27%p 떨어졌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3%p 하락했고 중기대출 연체율은 0.33%p 내려갔다.

가계대출 연체율(0.42%)은 전월말(0.52%) 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전월말(0.39%) 대비 0.04%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6월중 유동화에 따른 대규모 자산매각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연체율도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한미·녹십자… 잘나가던 제약株 '추락'

한미약품, 어닝쇼크 소식에 롤러코스터 장세
제약주 하락, 주가·신약가치 괴리 조정 때문

상반기 증시 랠리를 주도한 제약주가 연일 하락하며 약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2분기 호실적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이미 '옥석가리기'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9일 코스피시장에서 의약품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09포인트(8.71%) 내린 8205.93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1.48포인트(0.07%) 하락 마감한 것에 비해 낙폭이 컸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후 2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31.2% 늘어난 2445억원으로 분기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주가 하락을 방어하진 못했다.

한미약품은 전일 대비 18.35%(10만원) 빠진 44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한미약품은 전날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최대 7억3000만달러 규모의 폐암 치료용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초반 11.19%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미약품의 어닝쇼크 소식은 제약주 전체를 흔들었다.



/연합뉴스

녹십자는 10.34%(2만5500원) 하락한 22만1000원을 기록했고 한미사이언스와 국제약품도 각각 19.83%, 15.92% 떨어졌다.

이밖에 경보제약(-14.41%), 일양약품(-13.38%), JW중외제약(-12.88%), 대웅제약(-9.80%), 유유제약(-9.71%), 보령제약(-5.58%), 삼성제약(-4.07%), 일동제약(-3.21%) 등도 일제히 내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제약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4.46% 하락했다. 개별 업체들 중에서는 대화제약(-21.57%), 인트론바이오(-13.88%), 코오롱생명과학(-13.46%), 코아스템(-11.57%), 에스텍파마(-11.46%), 조아제약(-10.72%), 제노포커스(-10.41%), 메디포스트(-9.91%) 등이 크게 떨어졌다. 안국약품(-6.36%), JW중외신약(-5.60%), 바이오니아(-4.23%), 휴메딕스(-3.10%) 등도 약세였다.

의약품업종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주식 시장에서 신성장 사업으로 떠오르며 연초부터 지난 3일까지 122% 넘게 뛰어 올랐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평가 돼었다는 우려도 끊이질 않았다. 3일 연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18% 뒷걸음질 쳤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제약주 급등에 따라 이달 들어 제약주가 하락하는 것은 주가와 신약가치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의미의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적에 기반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연구원은 이어 "일부 제약주는 알려진 정보만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며 "특히 신약 제약주는 확실한 사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원금손실 30%로 낮춘 DLS공모" 유안타증권은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DLS 1종, ELS 3종을 총 3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유안타증권 제공

한국증권금융, 담보주식으로 삼성물산에 '찬성'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개최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로 맡겨진 주식'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주식 7만5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있던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증권금융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했을 때 위임장을 제공해왔다. 의결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처사였다.

금융권에서는 증권금융이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내부 규정까지 새로 만들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삼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금융은 측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합병 무산 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분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NH투자證 "집, 투자가치 아닌 '삶의 터전'이어야"

주택 마련 시 심리적 안정
노후 경제적 도움될수도

집을 보는 관점이 투자가치가 아닌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행복리포트 '집 한 채 있는 것이 좋다'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집은 삶의 터전이란 본연의 가치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보통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데, 집을 투자가치로만 본다면 향후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 등으로 노심초사하게 된다. 하지만 나와 가족이 평생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을 바라본다면 최근의 저금리 상황은 오히려 주택마련의 호기가 될 수 있다.

투자목적이 아니니 자산가치 변동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6년 이후 주택 매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집을 삶의 터전으로 바라본다면 주택 마련 시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어 소위 제4의 연금이라 불리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인생후반 내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복리포트에 실린 '알면 도움되는 연금저축 운용 꿀팁 9가지'에서는 중도인출 제도, 납입금액 전환제도, 세액공제 제도 등 중요한 팁들이 소개됐다.

또 '내 집은 그대로, 연금은 더 많이'는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이해에 필요한 내용과 활용방안 등을 담았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집을 중심으로 가족, 이웃과 형성되는 튼실한 인간관계는 장수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이제는 집을 구입할 때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생활적인 가치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보배 기자

신한금융투자, ELS·ELB·USD ELS 골라 청약

다양한 기초자산·수익구조
ELS 상품 등 총 9종 공모

신한금융투자는 연 5.12%의 수익을 추구하는 85배리어 ELS를 포함한 9종의 상품을 31일까지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1434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상품으로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12%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원금과 수익금(15.36%)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 3.5%의 수익을 추구하는 'ELB 1376호'는 저위험(4등급) 상품으로 HSCE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보유한 미국 달러로 청약과 결제가 이뤄지는 'USD ELS11393호' 상품도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갖춘 ELS 상품 등 총 9종을 준비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00-0119)로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6월 은행 예금금리 연1.67% '사상 최저'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적금금리 1.94% 기록

주택담보대출은 3.01% 대출금리도 3.49%로 ↓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지난 6월 은행권 정기적금 금리가 사상 첫 연1%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94%로 지난달 보다 0.07%p 하락했다.

<예금 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연%, %p)

		2013.12	2014.12	2015.4	2015.5	2015.6p	월중 등락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A)	2.67	2.16	1.78	1.75	1.67	−0.08
	−순수 저축성 예금	2.66	2.16	1.76	1.73	1.65	−0.08
	−시장형금융상품	2.74	2.17	1.83	1.83	1.75	−0.08
	대출금리(B)	4.52	3.91	3.36	3.56	3.49	−0.07
	−기업대출	4.67	4.07	3.67	3.71	3.61	−0.10
	·대기업대출	4.43	3.77	3.39	3.42	3.33	−0.09
	·중소기업대출	4.84	4.26	3.85	3.86	3.77	−0.09
	−가계대출	4.10	3.55	2.96	3.27	3.22	−0.05
	·주택담보대출	3.74	3.33	2.81	3.06	3.01	−0.05
	·공공 및 기타 대출	3.97	3.50	4.13	2.93	2.99	0.06
	금리차(B−A)	1.85	1.75	1.58	1.81	1.82	0.01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C)	2.19	1.92	1.71	1.65	1.59	−0.06
	총 대출금리(D)	4.72	4.21	3.94	3.88	3.80	−0.08
	금리차(D−C)	2.53	2.29	2.23	2.23	2.21	−0.02

주: p는 잠정치 /한국은행 제공

정기적금금리가 1%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전달보다 0.08%p떨어진 연 1.65%로 집계됐다.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7%로 전월대비 0.08p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1996년 이래 사상 최저치다.

대출금리는 연 3.49%로 지난달 보다 0.07%p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은 0.05%p 내려간 연 3.01%를 나타냈고 가계대출은 연 3.22%로 0.05% 하락했다.

기업대출은 0.10%p 내린 연 3.61%로 나왔다.

6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59%로 전월대비 0.06p 떨어졌다. 총대출금리는 지난 5월보다 0.08p 하락한 연 3.80%로 조사됐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2.24%로 전월보다 0.03%p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 0.06%p 떨어졌고 상호금융은 0.09%p, 새마을금고는 0.07%p 내렸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이 연 11.22%로 0.11%p 하락했고 신용협동조합 연 4.75%, 상호금융 연 4.20%, 새마을금고 4.22%로 각각 0.05%p, 0.06%p, 0.08%p 떨어졌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밥심(心) 나눠요" BC카드는 결식 계층에게 밥심(心)을 나누는 '빨간밥차 봉사단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BC카드가 기증한 이동식 급식차량 '빨간밥차'를 이용해 무료 배식 활동을 하게 된다. /BC카드 제공

우리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5169억원

전년比 23.87% 증가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5168억5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87%(996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여기에는 작년 상반기 민영화 방안으로 매각된 증권계열 자회사와 지방은행 분할 관련 손익은 제외됐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74.11% 하락한 226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4조8228억4700만원으로 0.19% 내려갔으며 영업이익은 2751억9700만원으로 6.82%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0.03%p 하락한 1.42%를 기록했다.

우리은행 측은 "인력효율화를 위한 명예퇴직 비용 (631억원)을 제외할 경우 양호한 이익흐름을 유지했다"면서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균형적인 대출성장을 통한 견고한 이자이익과 방카슈랑스, 펀드 등 비이자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 전경.

자산건전성도 개선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 4사의 부실채권(NPL)을 제외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5%로 작년말 대비 0.27%p 떨어졌다.

원화대출금은 우량대출자산 중심의 성장을 통해 전분기 대비 1.6%(2조8000억원), 전년 말 대비로는 4.7% (7조9000억원) 증가했다.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영향(3조9000억원)을 제외할 경우엔 전분기 대비 3.9%, 전년 말 대비 7.1% 성장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은 중간배당금을 주당 250원으로 결정했다.

계열사별는 우리카드가 올 상반기 7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우리 종합금융은 69억원의 순익을 시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더욱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견고한 주가 상승을 도모해 성공적인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6월 카드승인액 8.6% 증가

2분기 10.3% 올라 메르스 여파 '미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감에도 올해 2분기 민간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6월 및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 승인금액은 50조85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6% 증가했다.

공과금업종을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5%)도 작년 6월 증가율보다 1.3%p 상회했다. 여기에는 2분기 영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2일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올 2분기 카드승인금액은 157조2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늘었고 작년 2분기 카드승인금액 증가율(4.1%)을 6.2%p 뛰어넘었다.

여신협회 측은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 업종에 메르스 영향이 국한됐다"며 "메르스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공공장소 이용을 자제하면서 종합병원과 대형할인점, 교통, 여행, 숙박업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의료업종과 여행사·항공사, 학원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메르스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공공장소 이용을 자제하면서 6월 중 교통(−0.6%), 레저타운(−43.6%), 종합병원(−13.8%), 대형할인점(−6.2%)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감소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메르스 발병 근원지로 인식되면서 2분기 종합병원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1.6%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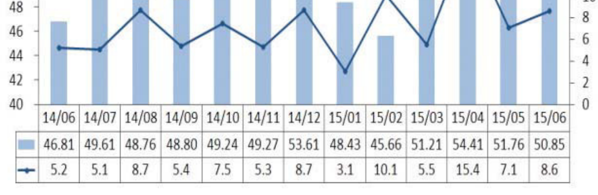
반면 약국업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과 같은 예방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카드승인금액이 5.7% 늘어났다.

같은기간 숙박업종은 단체관광객과 출장객의 잇따른 취소로 전년동기대비 4.3% 내려갔다.

한편 체크카드의 성장과 소액결제화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총 40조31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10조43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7% 올랐다. /백아란 기자

월별 전체카드 승인금액 /여신협회 제공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전체카드 승인금액(좌)	46.81	49.61	48.76	48.80	49.24	49.27	53.61	48.43	45.66	51.21	54.41	51.76	50.8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우)	5.2	5.1	8.7	5.4	7.5	5.3	8.7	3.1	10.1	5.5	15.4	7.1	8.6

내달 전국 신규분양 2만5010가구 쏟아진다

2004년 이후 최다 물량
수도권 19곳 1만1623가구
지방은 21곳 1만3387가구

다음달 신규 분양 물량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쏟아질 전망이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전국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임대 제외)는 40곳 2만5010가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5.6% 증가한 물량이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는 19곳에서 1만1623가구, 지방은 21곳에서 1만3387가구가 공급된다.

대표적인 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4

8월 전국 주요 분양단지

지역	사업명	일반분양	전용면적(㎡)
수도권	고덕숲 아이파크(고덕4단지 재건축)	250	59~108
	마곡지구 8단지	266	59~84
	힐스테이트 청계(대농·신한주택 재건축)	504	48~84
	e편한세상 센텀포레	207	59~124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1619	39~130
	광교 중흥S클래스	2231	84~163
	남양주 마석 푸르지오	620	59~84
	기흥역 더샵	1219	72~172
	평택세교 힐스테이트 1차	882	64~84
지방	힐스테이트 황금동(우방범어1차 재건축)	281	59~111
	세종시 2-1생활권 더하이스트	765	57~120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차 호반베르디움	1133	75~84
	나주혁신 EG the1	293	80~84

※가구수, 전용면적, 분양 시기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숲 아이파크다. 이 단지는 전용 59~108㎡ 687가구(일반분양분 250가구)다. 명일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5분 내에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평택 세교지구 1-2블록에서도 힐스테이트 평택 1차(64~84㎡ 822가구)를 분양한다. 평택에 위치한 수서~평택 간 KTX 평택지제역이 2016년 상반기에 개통예정이며 지난 5월 착공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송파 헬리오시티를 분양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은 39~130㎡ 총 9510가구(일반분양분은 1619가구) 규모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2018년 개통 예정인 9호선 석촌역이 인근에 있다.

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13구역에 짓는 e편한세상 옥수(전용면적 53~120㎡, 일반분양분 114가구)와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15구역에 짓는 e편한세상 센텀포레(59~124㎡, 202가구)를 분양한다.

SH공사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마곡8단지 등 4곳에서 공공분양분 520가구를 공급한다. 중흥건설은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중흥S클래스를, 포스코건설은 용인 기흥역세권지구에서 기흥역 더샵을 분양한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분양단신

세종 3-2생활권 마지막 아파트 분양

모아주택산업

세종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 투시도.

세종시 3-2생활권 마지막 아파트가 내달 공급된다.

모아주택산업은 오는 8월 세종시 3-2생활권 L3블록에서 '세종시 3차 모아엘가 더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10~18층, 12개동, 전용면적 84~126㎡로 전체 498가구 규모다.

세종시 3생활권에는 세종시청, 교육청, 경찰서, 법원, 경찰청 등의 기관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된다. 2017년 11월 입주 예정. /박선옥 기자

189개 점포… 3만5000가구 배후수요 탄탄

현대산업개발

구리갈매 아이파크 애비뉴


구리갈매 아이파크 애비뉴 투시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경기 구리 갈매지구 S2블록 주거복합단지내에 상업시설인 '구리갈매아이파크 애비뉴'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리갈매지구 첫 주상복합 상가인 이 시설은 지상 1~5층, 연면적 2만9462㎡의 규모로, 189여개 점포가 들어선다. 이 상가는 전철 경춘선 갈매역에 인접해 있다. 1200여가구의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2km 이내 갈매지구, 별내지구, 신내3지구 등 약 3만5000여가구의 배후수요도 갖추고 있다. /김형석 기자

자족형 신도시 설계… 단지 내 올인원 생활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용인


e편한세상 용인(가칭) 투시도.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은 지난 25일부터 총 740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용인(가칭)' 분양홍보관을 오픈해 운영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이 단지는 전용면적별 일반분양분은 44~103㎡ 등 총 6800가구다. 대림산업은 이 단지를 '대규모 자족형 신도시'로 설계했다.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올인원(All in one)' 생활이 가능하다. /김형석 기자

부동산정책, 매매 정상화 '기여' 전세 안정화 '부족'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4·6대책, 최고로 꼽혀
재정·노동정책과 연계
불안심리 확산 방지 제안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올해 나온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자료에 따르면 2·26대책은 ▲매매시장 81.1 ▲전세시장 81.1 ▲월세시장 75.3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4·6대책은 ▲매매시장 122.0 ▲전세시장 122.0 ▲월세시장 108.3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의미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했다"며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금리·심리·공급규제 등의 주택사업 요인에 대한 부담은 덜한 반면 경제성장·소득·인구 등의 요인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

2분기 서울 전·월세전환율 6.9%… 전분기비 0.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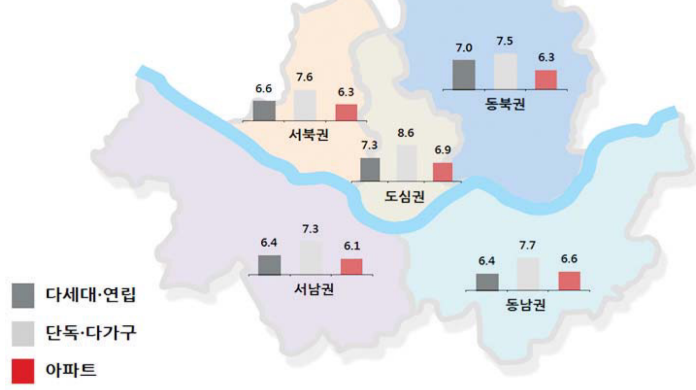
용산 7.6% 최고·양천 6.1% 최저

2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이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분기(4~6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출한 결과 연 6.9%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1분기(1~3월) 6.7%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구별로는 용산구가 7.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종로구와 강북구가 7.4%와 7.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양천구는 6.1%로 가장 낮았다. 강서구(6.5%)와 노원구(6.5%)도 평균을 밑돌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이 7.4%로 최고치를,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양천·영등포·동작구)이 6.6%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 8.6%로 최고 수준을, 서남권의 아파트가 6.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박선옥 기자

SK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가 회사의 힘"

사회공헌·창조경제 적극 지원 그룹 수뇌부 솔선수범 이끌어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오른쪽 네 번째)이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임종태 대전센터장(오른쪽 두 번째) 등과 함께 지난 23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드림벤처스타의 데모 데이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SK그룹 제공

SK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꿈나무 육성은 물론 국가정책에 앞장서며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그룹 수뇌부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창근 SK수펙스협의회 의장은 물론 각 계열사 사장단이 솔선수범하며 그룹의 사회공헌사업을 이끌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SK그룹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민간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김 의장 등 SK그룹 최고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로 인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SK그룹은 지난달 전사적인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SK그룹은 서울, 울산, 이천 등 100인 이상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헌혈 운동을 벌였다.

아울러 SK그룹은 헌혈한 임직원 숫자만큼 회사가 매칭 그랜트로 온누리상품권(헌혈 임직원 1인당 10만원)을 유관 기관에 기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SK그룹은 메르스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주력 계열사 사장들이 중국으로 날아가 '한국 세일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달 초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과 순즈창 SK차이나 대표 등은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SK그룹 계열사 사장들은 중국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업체를 방문해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SK그룹의 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지역사회에서 빛을 보고 있다. 특히 출범 5년을 넘어선 '행복한학교'는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절감의 '일석 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 행복한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후 수강할 수 있도록 설립한 방과 후 학교다.

2010년 2월 서울지역 13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문을 연 행복한학교는 올해 상반기 현재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 127개 초등학교에서 4만1327명의 학생에게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설립 초기 200여명에 불과했던 교육강사가 1257명으로 늘어나는 등 행복한학교는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강사의 90%가 여성으로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게 경력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창조경제에서도 SK그룹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센터)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센터는 '대박의 꿈'을 품은 벤처기업 '졸업생' 1기를 배출했다. 대전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 SK그룹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해 중소 벤처기업이 손쉽게 창업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0개월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출기업으로 성장했다. 벤처기업 매출은 18억1000만원을 기록, 입주 전(3억2000만원)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입주 벤처기업이 유치한 투자금도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SK C&C, 장애아동과 여름 물놀이 봉사

신입사원 41명 참여 행복나눔경영 실천


29일 경기도 광주시 한사랑마을 인근 야외수영장에서 한 SK C&C 신입사원과 장애아동이 물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SK C&C 제공

SK C&C는 29일 올해 신입사원들이 한사랑마을 장애아동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활동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인으로 첫 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SK C&C의 행복나눔 경영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SK C&C 신입사원 41명은 경기도 광주시 한사랑마을을 찾아 장애아동 90여명과 2인 1조로 짝을 이뤄 함께 인근 야외 수영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야외 수영장에서는 물총 서바이벌, 물풍선 터뜨리기 등 물놀이를 함께 했다. 이후에는 '눈치소통게임' 등 신입사원과 장애아동은 한마음 한뜻의 시간을 가졌다고 SK C&C 측은 설명했다.

김병두 SK C&C SKMS실장은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SK의 행복나눔 경영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SK의 신성장 동력이 될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네트웍스, 2분기 매출 5조·영업익 384억

SK네트웍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 1600억원, 영업이익 384억원(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29%, 14.94% 감소한 수치다.

SK네트웍스는 "감소 주요인이 메르스 사태와 팬택 재고보상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사측은 하반기에는 주력 사업과 신성장 사업 등 사업 분야 전반에 걸친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의 사업 모델 개선과 신성장 사업 육성 등 회사 수익구조 업그레이드 효과가 가시화로 연간으로는 전년실적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은 그동안 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팬택 관련 재고보상 비용이 완전히 해소되고 신규 단말기 출시 효과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확대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에너지유통사업은 유가 안정화 기조를 바탕으로 마켓리더십 강화와 주유소 복합화 등 사업 모델 개선 성과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기자 eunj71@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윈도우10 출시 간담회에서 홍보 보델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공

MS '윈도우10' 베일 벗었다

190개국 무료 업그레이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9일 전세계 190개국에 윈도우 10을 공식 출시했다.

기존 윈도우7과 8, 윈도우폰 8.1 사용자는 이날부터 1년간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예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윈도우10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능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보다 빠른 신규 웹 브라우저인 '엣지', 개인비서 '코타나', 안면인식 로그인 '헬로우' 등이 있다. PC와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끊김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컨티넘' 모드와 기존 비밀번호와 다르게 네트워크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보안을 높인 핀(PIN) 번호 로그인 기능도 지원한다.

한국MS는 이날 서울 중학동 본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윈도우10의 핵심 개발 개념으로 하나의 윈도우, 이용자 피드백, 서비스로서의 윈도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의 윈도우'는 사물인터넷(IoT)에서 홀로렌즈, 서피스 허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를 하나의 윈도우 플랫폼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다.

또한 MS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신 기능을 항상 빠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로서 윈도우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MS는 윈도우10의 강점으로 익숙함 속 강렬함, 개인화된 컴퓨팅, 작동성, 생산성 등 네 가지를 내세웠다.

친숙한 사용자 경험(UX), 높은 성능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코타나, 헬로우와 같이 이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작동하며 다중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상 데스크톱 기능과 엣지 등으로 생산성도 높였다. /정문경 기자

LG전자 "하반기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

2분기 실적발표… 세계 경기침체로 수익 악화
3·4분기 수익성 강화 위한 조직 체질개선 강조

LG전자가 2분기 실적 악화를 딛고 3·4분기 수익성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LG전자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2분기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액은 13조 9257억원, 영업이익 244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7.6%, 영업이익은 60% 각각 감소한 것이다.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액은 0.5%, 영업이익은 20% 줄었다.

순이익은 2264억원으로 작년동기(4118억원)에 비해 45.02% 빠졌으나 직전분기인 지난 1분기(384억원)보다 489.5% 가량 폭증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기타영업외수입비용의 증가로 3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기타영업 수익이 425억으로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대폭 개선됐다.

사업본부별로는 TV(HE)사업본부가 매출 3조9348억원, 영업적자 827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MC)사업본부는 매출액 3조6484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자동차(VC)사업본부는 매출 4508억원, 영업손실 15억원을 기록했다. H&A사업본부는 매출액 4조 4853억원, 영업이익 2918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LG전자는 "실적 부진은 LG전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 성장시장의 통화 약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LG전자는 3분기에는 수익성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TV 부문에 대해 "TV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며 "UHD(초고선명)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트라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수율(불량률의 반대개념)도 빠른 속도록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중반정도에는 UHD LCD(액정표시장치) TV의 경쟁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4 판매량의 부진을 시인하면서 3분기 출시될 슈퍼폰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는 "G4 매출이 목표했던 것보다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내 포지션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하반기 초프리미엄폰(슈퍼폰)은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 등에서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다. 자사 프리미엄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분기는 2분기 대비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UI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중저가 모델 수량을 기반으로 하고 하이엔드 모델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017년부터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실질적인 매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VC사업부의) 주력 제품은 카 인포테인먼트 분야이며 신제품은 전기차 부품이 대표적"이라며 "전기차 부품에서 구동과 공조에 관한 제품들을 계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카와 관련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9일 경기서 안성시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에서 이상헌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왼쪽부터), 남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팀장, 송복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고뢰자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대표 등이 '바른 ICT 청소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가지고 협약서를 양손에 들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SKB, 청소년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 앞장

연말까지 민관 합동 진행

SK브로드밴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헌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 남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팀장, 송복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고뢰자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대표 등 각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기도 안성시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에서 협약식을 갖았다고 덧붙였다.

참여기관들은 스마트미디어 중독 잠재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 및 체험·전시를 위한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헌 전략실장은 "다양한 대안 활동과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미디어 사용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민관 합동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 '드럼세탁기', 美 시장 상반기 판매 1위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브랜드별 드럼세탁기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티븐슨 컴퍼니에 따르면 올 상반기 브랜드별 드럼세탁기 매출액 기준으로 LG전자는 점유율 24.3%로 1위를 유지했다. 특히 900불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30.1%로 1위를 차지, 2위와는 15%포인트 가량 격차를 보였다.

LG전자는 올해도 '트롬 트윈워시'(사진) 세탁기 등 차별화된 혁신 제품을 앞세워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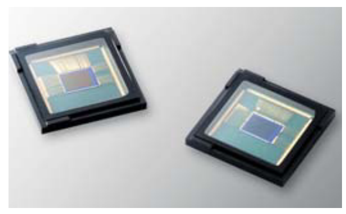
삼성전자, 업계 첫 1.0㎛ 화소 모바일센서 만든다

'아이소셀' 공정 기술
1.12㎛ 수준 화질 구현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화소(픽셀)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백만분의 일 미터)인 초소형 1600만 화소 모바일 CMOS 이미지 센서를 양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1600만 화소 이미지센서에 현재 구현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의 1.0㎛ 화소를 적용, 센서와 렌즈 사이의 초점거리를 줄일 수 있어 카메라 모듈 크기와 두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고화질 카메와 얇은 두께를 요구하는 초슬림 모바일기기에 최적화됐다. 이 이미지센서를



1.0 ㎛ 화소 기반 16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삼성전자 제공

적용한 카메라 모듈의 경우 두께를 5㎜ 이하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 1.12㎛ 화소를 채용한 16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대비 약 20% 정도 두께가 얇아져 스마트폰의 두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동일한 화소 수의 센서 모듈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화소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화소의 크기를 줄이면 흡수하는 빛의 양이 감소해 화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는 각 화소를 서로 격리시켜 간섭현상을 최소화하는 독자기술 '아이소셀' 공정 기술을 적용해 빛의 손실을 줄여 1.0㎛ 화소로 기존 1.12㎛ 화소와 동등한 수준의 화질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홍규식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마케팅팀 상무는 "삼성전자는 1600만 화소를 필두로 초소형 화소 이미지센서 제품군을 확대해 고화질 초박형 모바일기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 드럼세탁기, 美 진출 9년 만에 점유율 첫 1위

2분기 시장점유율 22.3%
세탁조 자동 청소 등 호응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미국 시장 진출 9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판매 1위를 차지했다.

29일 시장조사기관 '트라큐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 2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2.3%의 점유율(매출 기준)로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은 2006년 진출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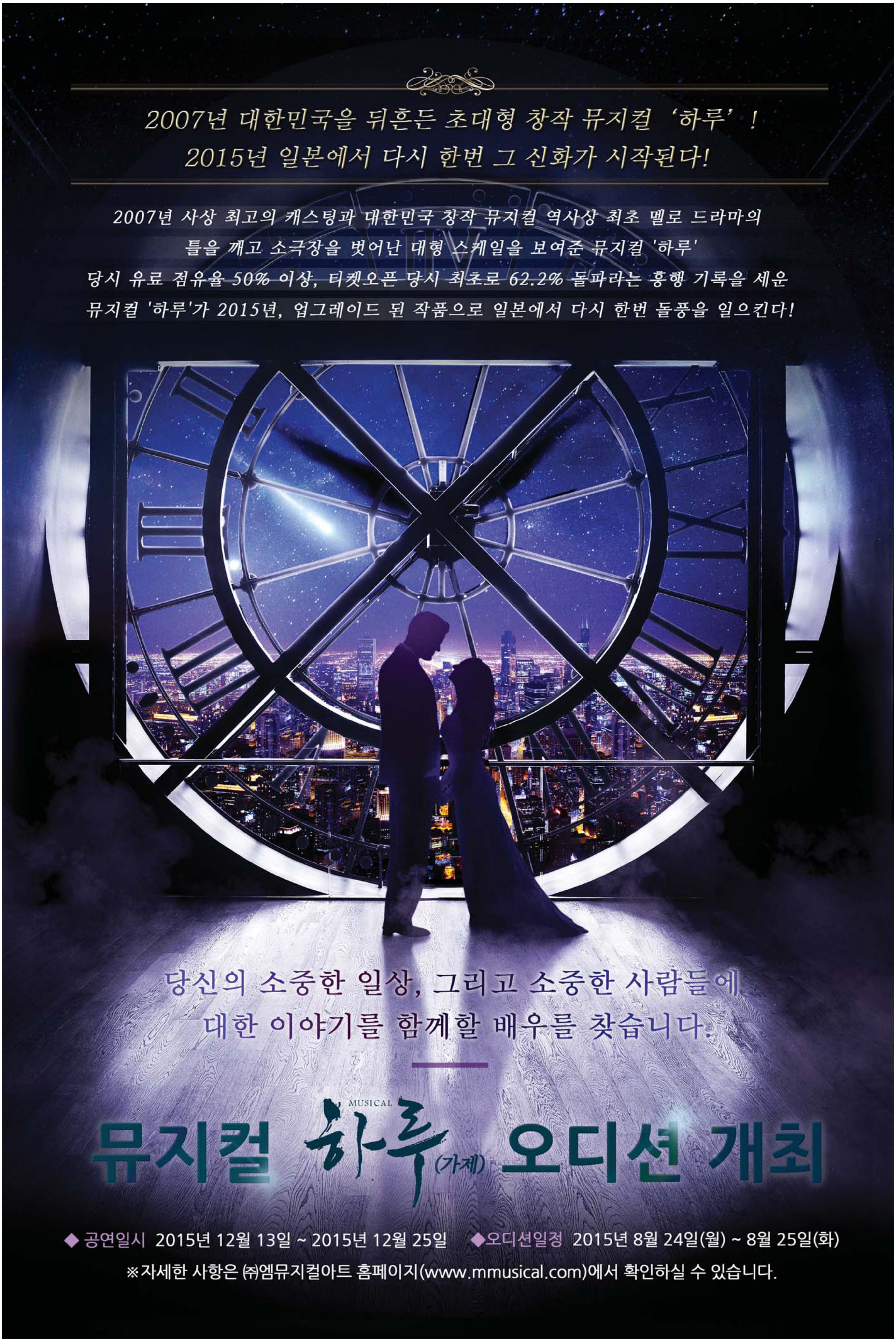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동급 최대용량과 강력한 물 분사로 세탁 시간을 줄여주는 '슈퍼스피드', 자동으로 세탁조를 청소하는 '셀프 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북미 쇼케이스 행사장에 진열된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제공

린 플러스' 등 차별화된 편의 기능이 미국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미국 최고 권위의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가 발표한 세탁가전 부문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업계 최초로 드럼세탁기·전자동 세탁기·의류 건조기 등 전체 세탁기 3개 부문 평가 1위를 차지하며 성능을 인정 받았다. /조한진 기자



200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창작 뮤지컬 '하루'!
2015년 일본에서 다시 한번 그 신화가 시작된다!
2007년 사상 최고의 캐스팅과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역사상 최초 멜로 드라마의
틀을 깨고 소극장을 벗어난 대형 스케일을 보여준 뮤지컬 '하루'
당시 유료 점유율 50% 이상, 티켓오픈 당시 최초로 62.2% 돌파라는 흥행 기록을 세운
뮤지컬 '하루'가 2015년, 업그레이드 된 작품으로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킨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할 배우를 찾습니다.
MUSICAL
뮤지컬 하루(가제) 오디션 개최
◆ 공연일시 2015년 12월 13일 ~ 2015년 12월 25일
◆ 오디션일정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 '빅3' 대규모 적자… 해양플랜트 발목

상반기 영업손실

현대중공업	-3634억
삼성중공업	-1조5218억
대우조선해양	-3조751억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3사가 올해 상반기 나란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조선업계 빅3는 최대한의 원가절감을 통한 실적개선 노력으로 하반기 적자폭을 줄인다는 각오다.

29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분기 매출 11조9461억원, 영업손실 1710억원, 당기순손실 2424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8%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84.5%, 60.7% 개선된 수치다.

상반기 현대중공업은 매출 24조1742억원, 영업손실 3634억원, 당기순손실 36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2% 줄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1.9%, 48.0% 개선됐다.

매출은 드릴십 등 인도에 따른 선박 건조물량 축소와 정유공장 정기보수로 가동률이 떨어지며 감소했다.

▲조선부문 반잠수식시추선 등 특수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해양부문 해외 현장 설치공사비 증가, 일부 공사의 공정 지연 ▲선박 2000척 달성기념 특별격려금과 퇴직위로금 등 967억원의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이 영향을 끼치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엔진기계부문과 전기전자시스템부문, 그린에너지부문 등은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정유부문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로 흑자 폭이 확대돼 전체적인 영업손실 규모는 축소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조선·해양부문 업황 회복이 더뎌지면서 실적 개선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공정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수익성 위주 영업 활동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감에 따라 하반기 실적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 매출 1조4395억원, 영업손실 1조5481억원, 당기순손실 1조1550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7% 줄고 영업이익은 2623억원에서 적자전환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060억원에서 적자전환했다.

상반기 삼성중공업은 매출 4조494억원, 영업손실 1조5218억원, 당기순손실 1조14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1% 줄고 영업손실은 1002억원에서 1418.8% 악화된 규모다. 당기순손실은 664억원에서 1623.0% 악화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분기에 대형 해양프로젝트의 손실이 예상되어 충당금을 설정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양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의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설계 물량 증가, 자재 발주 지연 등으로 추가 공정지연이 발생했다.

또 대형 해양 프로젝트의 경우 선상에서 수많은 인력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혼재작업으로 생산효율 저하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생산 공수가 급증하면서 손실 폭이 커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에 손익을 재점검하면서 진행 중인 공사의 원가 차질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아직 생산 착수 전인 프로젝트도 예상되는 모든 리스크를 도출해 반영한 만큼 향후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유사 문제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공수 절감과 극한의 원가절감을 통해 손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매출 1조6564억원, 영업손실 3조318억원, 당기순손실 2조39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2%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수치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 6조1425억원, 영업손실 3조751억원, 당기순손실 2조5640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4%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규모다.

대우조선은 반잠수식 해양시추선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같은 미경험 해양프로젝트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지연 등으로 실행예산(총예정원가)이 증가해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이후 해양 프로젝트가 대형화, 고사양화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턴키공사(EPC)로 수주해 발주사와 건조사 모두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는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사측은 "빈번한 설계변경 발생에도 불구하고 선주 측의 보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원가상승분을 사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나 손실 규모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재규어 '크로스오버 F-PACE' 테스트 성공적

재규어는 브랜드 최초의 퍼포먼스 크로스오버 F-PACE(사진)의 테스트 과정을 29일 공개했다.

재규어 F-PACE의 혹한기 테스트는 스웨덴 북부 아르제플로그에서 이뤄졌다.

혹서기 테스트는 두바이에서 진행했다.

사측에 따르면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아르제플로그의 눈길에서 재규어 F-PACE의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등 최신 주행 기술 검증과 사륜구동 시스템의 조율이 이뤄졌다.

두바이에서는 직사광선에 실내 온도가 70도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F-PACE의 에어컨디셔닝 시스템부터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F-PACE는 오는 9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다.

2016년부터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다. /이정필 기자

렉서스, 내달부터 '커넥트 투'서 명품 시승행사

매월 첫번째 금요일 진행
구매희망 고객 10팀 선정



LEXUS NX300h.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CONNECT TO'가 렉서스의 시승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렉서스 브랜드는 8월부터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CONNECT TO를 거점으로 한 명품 시승 행사 'Lexus Amazing Driving @ CONNECT TO'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을 방문한 렉서스 구매희망 고객이다.

렉서스 전시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매월 10팀의 고객을 선정한다.

선정된 고객은 CONNECT TO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승 전 해당 모델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도심과 고속도로 등 다양한 조건에서 약 2시간동안 시승이 진행된다.

시승 후에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식사와 기념품도 제공된다.

시승차종은 다양한 렉서스 하이브리드와 퍼포먼스 모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월 바뀐다.

8월의 모델은 지난해 10월 국내 출시된 하이브리드 NX300h와, 올해 2월 렉서스 최초의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NX200t다.

시승 프로그램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국 렉서스 공식 딜러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대한항공, 늦은 휴가 여행객 '할인 이벤트'

대한항공이 8월과 9월, 늦은 여름이나 초가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을 위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8월 2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댓글을 작성한 홈페이지 회원 3000명을 추첨해 8월은 8%, 9월에는 9% 국제선 항공권 할인 쿠폰(1매당 2인 사용)을 증정한다.

8월 말까지는 우리카드로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결제 금액의 7%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SNS 댓글 작성 이벤트를 통해 증정 받은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전 고객에게 호텔 예약사이트인 '호텔패스' 8% 할인, 허츠 렌터카 이용 시 할인 및 자사 면세품 인터넷 사전 구매 시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늦은 여름 얼리버드 이벤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필 기자

쌍용차,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는 전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4%의 찬성률로 2015년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쌍용차는 2010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교섭을 유지했다.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임금교섭은 16차 협상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이 투표 참여조합원(3369명)의 62.4%(2103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임금 협상의 주요 내용은 임금 부문은 기본급 5만원 인상이다. 별도 합의 사항으로 ▲생산 장려금 150만원 ▲신차 출시 격려금 100만원 ▲고용안정협약 체결 ▲퇴직자 지원제도 운영 등이 포함됐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노사상생의 정신이 지금의 쌍용자동차를 만들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사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게 감사한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해 티볼리 등 글로벌 판매 물량을 한층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신격호 롯데홀딩스 이사해임 무효 맞나

신동빈, 하루 뒤 신격호 대표박탈은 유효?
신동주측, 주총 소집해 신동빈 이사 해임 추진?

일본롯데홀딩스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7일 도쿄 본사를 방문해 신동빈 한국롯데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구두'로 해임한 것이 과연 무효일까.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격호 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다, 올해 94세로 거동과 언행이 불편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무효를 선언했다. 긴급이사회는 신동빈 회장 주도하에 이뤄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7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 등 5명과 함께 일본 도쿄 롯데홀딩스 본사를 방문해 자신을 제외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은 신 총괄회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이날 해임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는 신동빈 한국롯데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로 처리됐다.

하지만 27일 신격호 회장의 이사회 해임안이 "무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법 제390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광윤사로 이



기업은 롯데홀딩스 지분 27.65%를 보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그동안 광윤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 밖에도 롯데홀딩스 지분을 별도로 2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동주와 신동빈에게 일부 지분을 승계했다는 설이 있지만 확인된 내용은 없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의 나이로 거동과 언행이 불편한 상황에서 상황판단이 흐릿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추측일 뿐이다.

신 총괄회장이 해임한 츠쿠다 부회장에게 "앞으로 롯데를 잘 부탁하네"라고 부탁한 것으로 건강 이상설이 흘러 나오고 있지만 "롯데를 잘 부탁하네"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는 불과 두달 전인 지난 5월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또한 최근까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몰)와 롯데월드타워 보고를 받으며 방문객과 매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적법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신동빈 회장 등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했기 때문에 해임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신동빈 회장의 신격호 회장 해임은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해임된 후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안이 무효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법상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소집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임등기를 할 수 없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후임 대표이사를 선정하지 않은 가운데 신격호 대표이사 회장을 해임했다.

이 때문에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해임건을 두고 신동주·동빈 형제간 법정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롯데 맏딸 신영자 '캐스팅 보트'

롯데쇼핑 등 핵심 계열사 지분 골고루 보유
경영권 경쟁 촉발시 신동주 편 들 가능성 높아

한동안 잊혀졌던 신영자(74·사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롯데가의 소외된 다른 형제들이 신영자 이사장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큰 딸인 신영자 이사장은 지난 27일 아버지의 일본행에 동행한 데 이어 28일 귀국길에도 함께 했다. 동생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그룹 부회장과의 경영권 승계 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신 이사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일본행에 함께 하며 신 전 부회장에게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승계과정에서 이복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대항마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2012년 신 회장이 롯데그룹 회장으로 승진, 한국롯데의 경영 주도권을 쥐면서 물러났다.

지금의 롯데쇼핑과 롯데면세점을 만든 주역 중 한 명이다. 신 이사장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다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며 신동빈 회장과의 불화설, 퇴진 압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복지장학



재단 이사장과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건설에서 비상근 사장직을 맡고 있다.

신 이사장의 역할은 크진 않지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의 지분이 향후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0.74%)·롯데제과(2.52%)·롯데칠성음료(2.66%)·롯데푸드(1.09%)·롯데정보통신(3.51%)·롯데건설(0.14%)·롯데알미늄(0.12%)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절대 보유 지분은 많지 않지만 어느 한쪽과 합쳐지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구조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는 신동빈 회장으로 13.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지분율은 13.45%로 차이가 0.01%p에 불과하다.

1942년 생인 신영자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씨 사이에서 낳은 맏딸이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신 이사장의 이복동생으로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소생이다.

신 이사장은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부터 성장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0년대 영업이사로 백화점을 키우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08년부터 총괄사장을 맡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신격호 회장 사후 자기 몫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구도에서는 신 이사장이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게 될 경우 신 이사장 몫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비슷한 상황에서 신영자 이사장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당장은 경영 주도권을 챙겼지만 장악력을 높이면서 신 이사를 비롯한 우호지분을 늘리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방학맞이 체험세트 판매 2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어린이 모델들이 이 마트에서 판매중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음달 5일까지 곤충과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자연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세트와 여과기, 바닥재 장식이 포함된 '실버라인 어항세트'도 판매한다. /연합뉴스

KT&G 민영진 사장 사의 표명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중
후임사장 선임 절차 진행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KT&G 민영진(58·사진) 사장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KT&G는 민 사장이 이 날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KT&G 대표이사 사장직에 대한 사의를 밝히고 후속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G 이사회는 회사 정관에 따라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T&G 사장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 1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민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KT&G 사장에 선임, 2013년 2월 연임에 성공해 5년여 동안 재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KT&G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소망화장품, 바이오벤처기업인 머젠스(현 KT&G 생명과학) 등을 잇달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무적 흐름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미 기자

'순하리 유자' 파우치로 즐겨요

롯데주류, 휴가족 겨냥 출시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하리 유자 파우치'를 29일 선보였다.

'순하리 처음처럼 유자'를 파우치 타입의 치어팩(주머니 형태의 몸체에 돌림마개를 만들어 넣은 용기)에 담은 제품이다. 알코올도수는 병 제품과 동일하게 14도, 250㎖ 용량에 출고가는 1375원.(360㎖ 병 9625원)

이 제품은 냉장고나 아이스박스 같은 곳에 보관하면 치어팩 용기 특성 상 페트나 종이 제품보다 빨리 차가워져 무더위 속에 더욱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하리 유자 파우치'는 휴대가 간편하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색다른 패키지가 주는 '재미' 요소까지 추가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리큐, 생산-사용과정 온실가스 대폭 감축

애경, 3년간 연구개발 노력 소나무 21만그루 심은 효과



애경(대표 고광현)은 액체세제 리큐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2년간 30년생 소나무 21만 그루를 심은 효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액체세제 리큐는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사용량은 줄이면서 3배의 세척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량 계량이 쉽도록 용기에 세탁볼을 접목시켜 2010년 선보인 친환경 제품이다. 정량쓰기 캠페인을 비롯해 환경친화적인 제조공정을 도입, 원료 구입부터 생산·유통·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보다 4.2%(최소탄소감축율) 이상 감축시켰다고 애경 측은 설명했다.

또 리큐의 10개 제품이 2013년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했으며 특히 리큐 진한겔 드럼용 3L는 업계 최초로 탄소중립 제품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제품 인증과 탄소중립제품 인증 취득이후 2년 동안 감축한 온실가스양은 총 143만2390kgCO2(이산화탄소 환산기준)이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21만7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하다.

한편 애경은 2010년 사용이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스마트그린 경영'을 선포한 이래 친환경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애경 관계자는 "친환경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12월까지 30년생 소나무 약 5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상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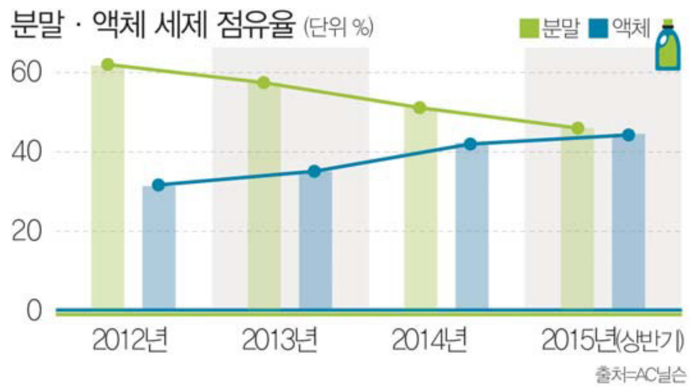


여름철 주방 위생 아이템 '스카트 프레쉬 블루 행주타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라퀴진에서 모델들이 유한킴벌리 '스카트 프레쉬 블루 행주타올'을 선보이고 있다. 스카트 행주타올은 삶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천연항균성분을 함유해 2~3번 빨아 쓸 수 있어 위생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제품이다. 요리 초보인 남자들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주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액체 세제, 분말 넘어선다

세제 시장 점유율 50% 육박 애경·LG생건·피죤 등 각축



분말에서 액체로. 세탁 세제 시장의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액체세제가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분말세제 시장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세탁세제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카테고리는 분말과 액체·중성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분말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꺾이는 분위기다.

AC 닐슨에 따르면 2012년 전체의 62% 비중을 차지했던 분말은 2013년 58%, 2014년 52%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48%까지 내려왔다. 반면 액체세제는 2012년 31%에서 2013년 35%, 2014년 41%, 올 상반기 45%로 증가하며 분말과 격차를 좁혔다.

액체세제는 물에 덜 녹아 의류에 세제 찌꺼기가 남는 가루세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장 파이를 키워왔다.

드럼세탁기 보급률이 높아진 것도 액체세제 시장이 크는 데 한몫했다. 드럼세탁기가 일반 세탁기보다 물 사용량이 적어 가루 사용 시 세제 찌꺼기가 남을까 우려하는 주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적은양만 사용해도 돼 경제적인 고농축 액체세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액체세제 시장은 LG생활건강(테크·한·입세제)·애경(리큐)·피죤(액츠)으로 대표되는 국내 업체 3사와 헨켈(퍼실)·RB코리아(파워크린)·CJ라이온(비트) 등 외국계 업체 3곳이 경쟁하고 있다.

2005년 피죤이 '액츠'를 출시하며 시장을 열었고 2010년 애경·LG생활건강과 같은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본격화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LG생활건강이 28.7%의 점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애경(23.6%)·CJ라이온(21.1%)이 쫓고 있다. 이 외에 헨켈이 9.5%, RB코리아가 5.9%, 피죤이 3.5%씩 각각 점유하고 있다.

업체 간 신제품 경쟁도 치열하다. 피죤은 최근 '액츠 프리미엄'을 선보이면서 액체 세제 라인을 강화했으며 고농축 세제 '반만 쓰는 리큐 진한 겔 1/2'을 출시한 애경은 브랜드 모델로 유재석을 기용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LG생활건강 테크도 올해 퍼퓸 액체세제를 출시했다. 헨켈은 이달 고농축 캡슐 세제 '퍼실 듀오 캡스'를 내놓았다.

업계는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조만간 액체가 분말 시장을 역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액체세제 점유율이 각각 88%, 70%에 달하며 프랑스도 50%를 넘어섰다.

생활용품 업계 관계자는 "드럼용은 물론 일반용 제품까지 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탁기 종류와 상관없이 액체세제를 찾고 있다"며 "세제 찌꺼기에 대한 우려를 액체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앞을 액체세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꼼수 가격 인상'… 용량 줄이고 가격 그대로

롯데제과·정식품 등 10% 이상 인상 효과

롯데제과와 정식품 등 식품업체들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중량을 줄여 10% 이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초코 빼빼로'는 지난 4월 판매가 960원(대형마트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52g에서 46g으로 11.5% 줄였다. 같은 가격의 '아몬드 빼빼로'와 '땅콩 빼빼로'는 중량을 39g에서 36g으로 7.6% 축소했다. 대용량 '초코 빼빼로'(3840원)도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중량은 기존 208g에서 184g으로 11.5% 줄였다.

롯데 '드림카카오 72%'(통)와 '드림카카오 56%'(통)는 이달 들어 판매가 2550원을 유지하면서 중량은 기존 90g에서 86g으로 4.4% 줄였다.

롯데 ABC초콜릿은 지난 5월 판매가 4800원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210g에서 200g으로 4.7% 축소했다. ABC밀크초콜릿도 판매가는 1850원 그대로 인데 판매가를 유지하면서 중량을 69g에서 65g으로 5.7% 줄였다. 정식품의 대표제품인 '베지밀A 고소한맛'과 '베지밀A 달콤한맛'(2280원)은 지난 2월 가격 변동 없이 용량만 1000㎖에서 950㎖로 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의 스팸볶음밥·스팸김치볶음밥 파우치 제품 역시 지난 2월 용량을 690g에서 660g으로 4.3% 줄였지만 가격은 7980원으로 변함없었다.

이들 업체는 가격은 놔두고 용량만 조절함으로써 사실상 4~11%의 가격 인상 효과를 본 셈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서해안 최대 해안축제 팡파르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
해양레저·갯벌체험 등 풍성
냉방텐트 등 편의시설 제공



화성시는 지난 11일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파워블로그를 초청, 해양체험 팸투어를 가졌다. /화성시청 제공

30일 개막하는 화성해양페스티벌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화성해양페스티벌은 서해안 최대 해안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전곡항에는 마리나 시설의 장점을 활용한 해양레저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궁평항에는 갯벌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 즐길 수 있는 육상 체험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화성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전곡항은 서해안 최대의 마리나 시설을 갖춰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주목 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람객이 바다와 해양레저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페스티벌은 관람객에게 더 많은 체험기회를 주고자 요트·보트수를 전회보다 늘려 13대로 확대했다. 해양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은 요트·보트를 비롯해 황포돛배, 펀(FUN)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등 10종에 달하는 해상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전곡항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과거 당성과 실크로드로 연결됐던 바닷길을 따라 경주하는 한·중 오션레이스가 펼쳐진다. 여기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국제요트대회도 개최돼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전곡항 육상체험존도 다채로운 육상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형 야외수영장,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 야외 수영장이 설치돼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비롯해 페달보트 체험, 머드 체험 등이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궁평항 육상체험존에서는 어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수조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물고기를 잡는 맨손 물고기잡기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획득한 물고기를 썰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낚시대회도 열린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물을 주제로 한 퍼레이드 공연과 함께 하루 4회 물총싸움이 펼쳐지며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한 물놀이 공간도 설치된다. 물풍선과 물폭탄을 터뜨리는 행사도 마련돼 시원하고 짜릿한 물놀이 게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해양페스티벌은 해양, 육상 체험 외에도 갯벌을 활용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궁평항 갯벌체험존에서는 장애물 달리기, 갯벌림보, 갯벌썰매 등 갯벌 3종 게임으로 구성된 갯벌 올림픽을 진행한다. 가장 빠르게 통과한 팀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갯벌 속에 숨겨진 황금바지락 캐기, 설게잡이 등 갯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화성락페스티벌, 경기도 국제요트대회 축하공연, 폐막 공연 등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예술동아리공연, 버블체험, 삐에로 풍선마임, 어쿠스틱 밴드 등의 문화 행사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곡항은 6500대, 궁평항은 5000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며 5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음식관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방 텐트도 제공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화성해양페스티벌' 홈페이지(http://www.hs-festiv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쉐라톤인천 호텔서 추억여행 즐기세요

써머 이스케이프 패키지

빈티지존 옛날 소품 비치
교복·장남감 등 향수 자극



무더운 여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시간을 원하는 가족들을 위해 국제도시 송도에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특별한 패키지를 마련했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써머 이스케이프 패키지'를 오는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낮에는 송도의 이색적인 전경을,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디럭스 시티 뷰에서의 1박과 함께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의 조식, 선착순 100명에 한한 쉐라톤 타올 어메니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다. 가격은 19만5000원부터이다. (봉사료·세금 별도)

써머 이스케이프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

빈티지 체험존에는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옛날 장난감과 사탕 등으로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로비에 마련돼 있다. 딱지, 종이인형, 제기, 공기 등을 1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과 입장권이 체크인 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sheratonincheo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2) 835-1004.

/박상길 기자 sweatsk@

이화의료원, 신임원장에 김승철 교수

목동병원장엔 유경하 교수



김승철 신임 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58·산부인과)가 임명됐다.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55·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각각 2년.

김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명의로 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를 나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 권위자인 유 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최치선 기자

강강술래 "드신 만큼 덤으로… 알뜰외식 하세요"

내달 12일까지 바캉스 이벤트
피서지 간편먹거리 반값 할인



외식문화기업 전한(대표 최종만)이 운영하는 한식숯불구이전문점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고객들이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고 휴가비용 부담을 덜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늘봄농원점은 8월 12일까지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때 포장해준다. 단 점심특선, 해피아워는 제외된다.

또 8월 말까지 상계·시흥·홍대·늘봄농원점은 바캉스1호(한돈양념500g×3팩)를 5만원, 바캉스2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를 4만원, 바캉스3호(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구이520g)를 7만원에 각각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신림·서초·역삼·여의도점은 바캉스1호(한우불고기500g×2팩+술래양념520g)를 5만원, 바캉스2호(술래양념520g+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500g)를 7만5000원, 바캉스3호(술래양념520g×2팩+왕양념갈비560g+한우불고기500g)를 10만원에 파격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청담점도 바캉스1호(한돈양념500g+술래양념520g)를 5만원, 바캉스2호(민속양념500g×2팩)를 4만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한우로 우려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봉/20인분)는 3만5700원, 100% 한우갈비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는 3만3000에 각각 50% 할인 판매한다.

/정은미 기자

한미약품, 베링거에 7억 달러 기술 수출

폐암신약 라이선스 계약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자체 개발 중인 내성표적 폐암신약(HM61713)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HM61713에 대한 공동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다.

또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5000만 달러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스톤 6억8000만 달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자릿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는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 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ments Act)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HM61713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EGFR돌연변이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따라서 기존 치료제 투약 후 나타나는 내성과 부작용을 극복한 내성표적 폐암 신약이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조은지**, **류현경**이 현 소속사인 프레인TPC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두 배우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프레인TPC와 첫 계약을 맺었다. 프레인TPC는 두 배우의 합류 이후 현재 20여명의 배우가 소속된 대형 기획사로 성장했다.



일본서 새 싱글 발표

걸그룹 **AOA**가 일본에서 세 번째 싱글로 '심쿵해'를 29일 발표했다. AOA는 지난해 10월 첫 싱글 '미니스커트'를, 지난 2월 두 번째 싱글 '사뿐사뿐'을 발매했다. AOA는 30일 나고야, 31일 오사카, 다음달 1일 도쿄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2년 7개월 만에 컴백

힙합 그룹 **배치기**가 2년 7개월여 만에 컴백한다. 배치기는 28일 SNS를 통해 "배치기 갑중갑(甲中甲) 8월 6일 낮 12시 공개"라는 글과 함께 독특한 재킷 이미지, 그리고 미니앨범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둘째 임신 5개월이에요



배우 **신애**가 둘째를 임신했다. 현재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어 태교에 전념 중이다. 신애는 2009년 드라마 '천추태후' 이후 결혼과 동시에 가정생활에 충실해왔다. 내년쯤 연기 활동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인 DJ와 협업



래퍼 **윤미래**가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DJ 보이즈노이즈(BOYZ NOIZE)와 함께 한 싱글 '캡처 더 시티(Capture the City)'를 31일 발표한다. 도시 서울의 소리를 믹스해 만든 곡으로 보이즈노이즈의 디제잉과 윤미래의 랩이 어우러진 노래다.



청년으로 돌아온 유승우

유승우(18)는 로이킴, 정준영과 함께 2012년 엠넷 '슈퍼스타K4'가 배출한 스타다. 16세 나이로 방송에 출연해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의 노래 '석봉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 귀엽고 앳된 외모, 가녀린 미성으로 가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슈퍼스타K4' 출연 이후에는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까지 가능한 10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해왔다.

'석봉이'는 이제 잊어주세요

> 스타쉽 이적 후 첫 신곡 발표
> 스무 살의 사랑 담은 '예뻐요'
> 앞으로 색다른 도전 하고싶어

올해 우리 나이로 열아홉 살이 된 유승우가 29일 정오 세 번째 싱글 '예뻐요'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신곡이다. 이 기획사엔 씨스타·보이프렌드·몬스타엑스 등이 있다. 히트 작곡가 김도훈과 작사가 김이나가 만든 노래로 힙합 그룹 긱스 멤버 루이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유승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압구정동에 엠아카데미 M콘서트홀에서 '작은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을 첫 공개했다. 취재진 앞에 오랜만에 선 유승우는 다소 긴장된 듯 웃음을 지으며 쇼케이스 행사를 진행했다. 새 싱글에 함께 수록된 노래 '그 밤 사이'로 막을 열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커버한 '맨 인 더 미러(Man in the Mirror)', 절친한 기타리스트 정성하와 함께 한 미발표곡 '실수'에 이어 타이틀곡 '예뻐요'의 첫 무대를 선보였다.

'예뻐요'는 스무 살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다. 유승우는 "풋풋하고 달달하고 설렘이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유승우가 들려준 어쿠스틱 기타 중심의 포크 음악과 분위기가 다른 업템포의 비트가 인상적이다.

이번 신곡에서는 유승우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승우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를 '석봉이'의 이미지로 봐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다"며 "트렌디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이번 신곡에 담겼다. 나이에 맞는 색깔을 찾게 된 곡"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우와 스타쉽의 만남도 관심을 갖게 한다. 유승우는 스타쉽의 어쿠스틱 레이블을 통해 활동하는 첫 뮤지션이다. 그는 "스타쉽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도"라며 "만약 혼자였다면 이번 노래도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의 어쿠스틱 밴드 음악이 됐을 것이다. 스타쉽과 만났기에 조금은 주류의 트렌드를 담은, 요즘 듣기 편한 음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작곡이 아닌 김도훈 작곡가, 김이나 작사가의 곡을 타이틀로 한 것도 "선배들의 트렌디함을 배운다는 생각에서 였다"고 밝혔다.

이른 97년생인 유승우는 내년이면 진짜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된다면 마이클 부블레처럼 섹시한 음악도 해보고 싶다"는 유승우에게 '예뻐요'는 변화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신호탄과도 같은 노래다. 오는 9월에 콘서트 계획이 잡혀있다.

"'슈퍼스타K4' 이후 지난 3년은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많은 시간이었어요.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사회생활도 더 잘 할 수 있게 됐어요(웃음). 하지만 음악적으로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는 더 색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 도전할 거예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오싹·코믹·감동… 연극 '거기'

내달 18~30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극단 차이무의 연극 '거기'가 8월 18~30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연극 '거기'는 강원도 강릉의 작은 시골 마을이 배경이다. 언제나처럼 동네 노총각들은 주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서울에서 이사 온 사연이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한다. 술집에 모인 네 남자와 한 여자는 귀신 다니는 길에 지어진 집, 어린시절 아껴주던 아주머니의 죽음을 예측한 옆집 소녀, 술김에 본 변태귀신 이야기 등 오싹하면서도 웃음이 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잡담처럼 주고받는 이들의 대화는 끈끈한 정이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2002년 한국 초연 당시 강원도 사투리의 감칠맛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5개월 간 장기공연됐다. 그해 한국연극 베스트 7,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등에 선정됐다.

올해 공연은 극단 차이무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다. 극단 차이무가 배출한 김승욱·이대연·김중기·정석용·오용·송재룡·류제승·김훈만·김소진·오유진 등이 대거 출연한다. 연출은 민복기가 맡았다. 문의: 02) 747-1010

/김민준 기자 mjkim@


전설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매주 목요일밤 9시 40분
O'live
한食대첩
하동녹차
왕의 녹차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김희애 "시궁창 굴러보기는 처음"



김희애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새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SBS 새 월화극 '미세스캅' 데뷔 34년 만에 형사 도전

배우 김희애(48)가 데뷔 34년 만에 형사 역을 맡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김희애는 SBS 월화극 '상류사회' 후속으로 다음달 3일부터 방송되는 '미세스캅'(연출 유인식·극본 황주하)에서 정의롭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강력반 팀장 최영진으로 분한다. 수사 현장의 지휘자이자 딸을 키우는 싱글맘으로서 일과 가족 사이에서 늘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애환을 그린다.

김희애에게 이번 드라마는 도전 그 자체다. 지금까지 '밀회' '아내의 자격' 등 기품 있는 상류 여성이나 인자하고 헌신적인 엄마·아내 역할을 주로 해왔던 그가 이번에는 시궁창을 뛰고 땅바닥을 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의상 역시 드레스 대신 청바지를, 하이힐이 아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운동화로 무장한다. 또 흉악범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두둑한 배포와 사건 현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SBS 새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손호준, 김민종, 이다희, 김희애, 박민하, 신소율, 이기광. /연합뉴스

2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희애는 "화장도 거의 못하고 땀범벅이 된 채 연기했다. 실제 하수구에서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했다"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때문에 작품 선택의 폭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활동적이면서 당당한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액션스쿨에서 훈련도 받았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끄럽지 않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미세스캅'은 '너희들은 포위됐다' '샐러리맨 초한지' '자이언트' 등을 연출한 스타PD 유인식 감독과 '내게 거짓말을 해봐' '해신' 등을 쓴 황주하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김민종·이다희·손호준이 강력계 동료로 나서고 신소율은 동생으로 출연한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인간 허수아비가 된 천하장사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 15분



천하장사 이만기가 '블루베리 밭의 파수꾼'이 된다. 지난해 블루베리를 따먹는 새 때문에 피해가 막심했다는 장모의 말에 이만기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블루베리 밭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다. 졸지에 새 쫓는 인간 허수아비가 된 이만기는 멍하니 전봇대에 서있는 게 지겨워지자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며 카세트를 가져온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녹음해 새들을 쫓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tvN '한식대첩'

오후 9시 40분

전국의 '산해진미' 재료를 주제로 경합을 벌인다. 서울팀은 최고의 식재료로 손꼽히는 당나귀 고기를 준비해 심사위원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한다.



◆ tvN '가이드'

오후 11시

두 번째 여행지인 벨기에로 간다. 중세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멋'과 초콜릿과 와플의 달콤한 '맛'이 공존하는 곳에서 가이드들은 고객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분발한다.



◆ JTBC '님과함께 시즌2'

오후 9시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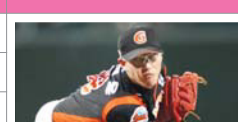
요리초보 윤건·장서희 부부는 봉골레 파스타 요리에 도전한다. '호랑이 선생님' 남성렬 셰프가 지도에 나서 두 부부는 혹독한 요리 수업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일(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4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식, 밀라노에서 길을 묻다	50 오늘부터 사랑해 (81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38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5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시간을 달리는 TV (4회)	55 딱 너 같은 딸 (54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광복70년 기획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6회)	00 밤을 걷는 선비 (8회)	00 가면 (20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센스 앤 센서빌리티>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방학 특선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24시	40 영상기록 500일 금강비행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MBC스포츠 2015 브리티시 여자 오픈 골프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45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112회) (재)		50 오늘 뭐 먹지?		50 주말 N 영화 (524회)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두산 (SPOTV+) NC vs 삼성 (MBC SPORTS+) LG vs 롯데 (SKY SPORTS) KT vs 넥센 (SBS SPORTS) SK vs KIA (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30 오늘 뭐 먹지? (83·84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0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젠틀맨리그 (1회)	30 주문을 걸어 (3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0회)	00 도성풍운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3회)	40 한식대첩 3 (11회)	30 한식대첩 3 (11회)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9회)		
22시				00 <퍼펙트 프레데터>북극곰	00 부당거래	
23시	00 썰전 (126회)	00 가이드 (2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11회) 20 오늘 뭐 먹지?	00 프로그맨 5부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102회)	20 집밥 백선생 (11회) (재)	00 한식대첩 3 (11회)	00 콜드 워터 골드 (10회)	30 더 인비트위너스 : 섹스온더비치	

김경언 복귀… 82년생 클린업트리오 완성

정근우·김태균과 '개띠' 한화 중심타선 활약

부상에서 복귀한 김경언(33)이 타격감을 되찾으면서 한화 이글스의 '1982년생 클린업 트리오'가 완성됐다. 정근우·김태균·김경언으로 구성된 한화 중심타선은 타 구단도 부러워할 만한 파괴력을 선보였다.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원정경기에서 10-2로 승리한 뒤 김성근(73) 한화 감독은 "역시 3, 4, 5번이 살아나야 한다"고 클린업 트리오의 활약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근우·김태균·김경언은 8안타 5득점 5타점을 합작했다.

1회초 1사 2루에서 정근우는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고, 김태균이 볼넷을 고르자 김경언이 중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다. 2-0으로 앞선 3회에는 정근우가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를 성공했고, 김태균이 다시 볼넷을 얻었다. 무사 1, 2루에서 김경언은 우월 2루타로 타점 한 개를 추가했다. 김태균도 8회 2사 3루에서 우월 2루타로 타점을 올렸다.

시즌 초 한화 돌풍을 이끌었던 김경언은 5월 26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투수 공에 종아리를 맞아 부상을 당하면서 주춤했다. 다음 날부터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후 8일 1군으로 복귀했지만 6타수 무안타만 기록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퓨처스(2군)리그에서 타격감을 조율한 김경언은 26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1군에 복귀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하며 부활을 예고했다. 28일 두산전에서도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하며 진가를 입증했다.



정근우



김태균



김경언

김경언의 '완벽한 복귀'는 한화 중심타선의 화룡점정이다.

한화의 4번타자 김태균은 시즌 내내 기복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타율 0.350(4위), 17홈런(공동 12위), 79타점(공동 5위)을 올렸다. 출루율은 0.494로 1위다.

정근우는 스프링캠프에서 당한 턱관절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고 시즌 초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그러나 6월부터 타격감을 회복해 28일 현재 타율을 0.287로 끌어올렸다. 수비 부담이 큰 2루수로 뛰면서도 타격과 주루에서 맹활약 중이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강정호, 역전 결승 홈런포 짱!

미네소타전 9회 작렬 추신수는 1안타 기록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역전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강정호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석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사구를 기록했다.

특히 7-7로 맞선 9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뒤 미네소타 불펜투수 글렌 퍼킨스의 시속 84마일(135㎞)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비거리 132m의 대형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6호 홈런포다. 강정호의 홈런으로 피츠버그는 역전에 성공하며 8-7로 승리했다.

0-1로 뒤진 4회초에서는 펠프리의 시속 93마일(150㎞)짜리 싱커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6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289(263타수 76안타)로 올랐다.

경기 후 강정호는 "힘든 경기를 홈런으로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팀 연승을 이어간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뉴욕 양키스와의 맞대결에서 8번타자 겸 우익수로 나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텍사스는 5-21로 대패했다.

/김민준 기자 mjkim@

골드컵 우승 1등 공신 멕시코 감독, 전격해임

멕시코 축구협회 "우리의 가치·원칙은 성적보다 우선"

멕시코를 브라질 월드컵 16강과 북중미 골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미겔 에레라(47·멕시코·사진) 감독이 전격 해임됐다.

멕시코 축구협회는 29일(한국시간) 에레라 감독을 경질하면서 "기자와 문제를 일으킨 에레라 감독은 우리 협회의 페어플레이, 상호 존중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며 "우리의 가치와 원칙은 성적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후임 감독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에레라 감독과 기자의 충돌은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벌어졌다. 전날 열린 골드컵 결승에서 자메이카를 3-1로 물리친 멕시코 대표팀이 귀국을 준비하는 시점이었다. 평소 멕시코 축구 대표팀에 강한 비판을 하던 아즈테카 TV의 크리스티안 마르



티놀리 기자를 만난 에레라 감독은 마르티놀리 기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협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협회에 전달됐고 하루 만에 해임이 결정됐다.

에레라 감독은 2013년 10월 멕시코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해 멕시코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에 올려놨다. 조별리그에서 2승1무로 잘 싸웠고 네덜란드와의 16강전에서 1-2로 아깝게 졌다. 지도력을 인정 받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골드컵 우승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으나 경기장 밖의 불미스러운 일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하희철 기자

기보배·구본찬, 리커브 혼성전 은메달 확보

女리커브 단체전 결승행 좌절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기보배(광주시청·사진)·구본찬(안동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29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15 세계양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3일째 리커브 혼성팀전에서 기보배와 구본찬은 8강, 4강에서 모두 타이브레이크 대결 끝에 5-4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확보했다. 8강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18-16, 4강에서 중국을 상대로 19-17로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거뒀다. 결승에서는 대만의 린스자·궈청웨이와 자웅을 겨룬다.

구본찬은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청주시청)과 나선 남자 단체전에서도 8강에서 스페인을 5-1, 4강에서 미국 5-1로 가볍게 물리치고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만나게 됐다.

그러나 기보배는 강채영(경희대)·최미선(광주여대)과 팀을 이룬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러시아에 패했다.

/하희철 기자

헨리 메히아, 또 약물… 162경기 출전정지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우완 마무리 투수 헨리 메히아(26·사진)가 금지약물 복용 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같은 이유로 또 중징계를 받게 됐다.

메이저리그는 29일(한국시간) 메히아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금지약물인 스타노졸롤과 볼데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16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메히아는 지난 4월 스타노졸롤 양성 반응을 보여 8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풀린 뒤 지난 13일 팀에 복귀해 7경기에 출전해 $7\frac{1}{3}$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으로 호투 중이었다.



메츠 구단은 성명에서 "매우 실망스럽지만 메이저리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으로 2010년 메츠에 입단한 메히아는 결국 두 차례 징계로 7경기 출전 기록만 남긴 채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하희철 기자

Can Bio Samsung's be the Next Generation's Leader?

<바이오 삼성의 차세대 주력 먹거리 될까?>

Can Samsung's bio business which leads the whole group be the next leader? Currently, they are running the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and Bio similar(Duplicated Medicine) business.

Both have showed steady increase, but the experts say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make billions of dollars yearly.

They pointed out that there will be no growth without the invention of new medicine.

According to the financial firms on the 28th, Samsung Biologics and Samsung Bioepis's yearly sales are looking up to 940 million and 950 million dollars each.

Samsung Biologics is CMO and Samsung Bioepis's is Bio similar specialty company. Samsung bio business has set its goals to 3.9 billion dollars yearly for sales and 2.2 billion dollars for business profits by year 2025.

Samsung officials stated that Samsung bio technology is not yet at a point where they can develop new medicin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송도 플랜트에서 열린 삼성 바이오 사업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그룹 전체를 끌고 가는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삼성은 의약품 위탁생산(CMO)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등의 바이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되지만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수십조원대의 연매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신약 개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CMO와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20년 연 매출은 각각 9400억원, 9500억원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다.

삼성의 바이오사업은 2025년에는 연매출 3조9000억원원과 영업이익 2조2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 기술력이 아직까지 신약개발을 바라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3				9		6		7
					1		9	
	7					2	8	
		2	3	4				
	8	4				7	1	
				1	6	9		
	2	3					6	
	4		1					
9		5		3				8

1	9			5		3		
	3	5			7			
	2		3					1
	6		8	7				
	1	4		9		6	8	
				2	1		5	
8					2		7	
			4			1	9	
		6		1			3	8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3	5	1	2	9	8	6	4	7
2	6	8	4	7	1	3	9	5
4	7	9	5	6	3	2	8	1
1	9	2	3	4	7	8	5	6
6	8	4	9	2	5	7	1	3
5	3	7	8	1	6	9	2	4
8	2	3	7	5	4	1	6	9
7	4	6	1	8	9	5	3	2
9	1	5	6	3	2	4	7	8

1	9	8	2	5	6	3	4	7
6	3	5	1	4	7	8	2	9
4	2	7	3	8	9	5	6	1
5	6	2	8	7	4	9	1	3
7	1	4	5	9	3	6	8	2
3	8	9	6	2	1	7	5	4
8	5	1	9	3	2	4	7	6
2	7	3	4	6	8	1	9	5
9	4	6	7	1	5	2	3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업운과 연애운이 궁금합니다 연말까지 일단 취직에 몰두하세요

알로하라 여자 92년 1월 13일 양력 13시50분

Q 메트로 애독자 입니다. 요즘 너무 고민이 되어서 여기다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취업준비를 해왔습니다. 올 초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계속 지원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는군요.

현재 저는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긴 근무시간과 적은 월급이라서 이 일을 그만두고 하반기에 있을 공개채용에 다시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연애 운과 관련해서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요. 올해 연애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관성(官星:나를극하는오행)은 남자와 직장을 나타내며 하나는 정관(正官)이고 다른 것은 편관(偏官)입니다.

정관은 남편이나 배우자를 말하고 직장도 관직이나 공무원을 나타내며 편재는 치우친 관성이므로 다른 남자와 일반 회사를 나타냅니다.

남은 기간에 최대한 올인하여 응시하려는 대상 업체에 대한 심층파악도 다시 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자격이 갖춰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응시했으나 안 된 이유도 다시 분석 해보세요.

이성을 만나는 것도 취업과 관련이 있으니 올해 말까지 생각을 잠시 접고 직업에 몰두를 하십시오.

사주구조를 보면 무토(戊土)사주가 옆에 신금(辛金)을 갖고 있는데 1월 생월이라 초목이 모두 메말라 죽어 있는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 있으니 나무하나 없는 민둥산에 찬바람만 불고 있어 고독하기가 그지없는 형상입니다.

정관이 충살(沖殺:충돌)을 당하고 있으며 원진(怨嗔:원수지듯 지냄)에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풀리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분간 형살(刑殺)또한 무례지형(無禮之刑)이라 불청객이 출현하여 주인행세를 하는 것처럼 인연이 부족하니 지면상 다음날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를 잘 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택해야하고 김을 매고 정성스레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고가 가득 차는 보답이 있게 됩니다.

사주나 풍수가 아무리 좋다 해도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이 세상은 노력만 한다 해서 모두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집단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30일 (음 6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60년생** 일마다 장애가 많습니다. **72년생** 주위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픕니다. **84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소 **49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61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3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85년생** 시비하지 말고 화해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체력관리에 힘쓸 때 입니다. **62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합니다. **74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됩니다. **86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입니다.

토끼 **51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입니다. **63년생** 소신을 굽히지마세요. **75년생**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용 **52년생**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합니다. **64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76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8년생**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뱀 **53년생**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65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77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89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세요.

말 **54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66년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78년생** 무엇보다 건강이 상책입니다. **90년생** 혼자 떠나는 여행은 금물입니다.

양 **55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67년생** 아랫사람을 챙겨주세요. **79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1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숭이 **56년생** 새롭게 시작함이 좋습니다. **68년생**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세요. **80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합니다. **92년생**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닭 **57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69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81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입니다. **93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겠습니다.

개 **58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70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82년생**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세요. **94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시간을 투자하세요. **71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닙니다. 화해하세요. **83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95년생** 진로문제로 갈등 있겠습니다.

완성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한 이유



김필수의 차 이야기

얼마 전 국내 최대의 튜닝모터쇼인 서울오토살롱의 부대 행사로 자동차 튜닝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운영 내지는 계획 중에 있는 튜닝관련 테마파크나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발표를 주안점으로 뒀다.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발표인 만큼 관심도 있었고 서로 간에 장단점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이미 절찬리에 운행되고 있는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를 중심으로 전남 영광 F1시설을 이용한 튜닝인증센터, 경기도 고양 K월드는 조성 계획 중이다. 서울 장한평 클러스터 현대화, 대구 튜닝단지 활성화, 아직 수면아래에 있지만 가능성이 큰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를 중심으로 한 튜닝단지, 강원도 인제 완성차 융복합 튜닝 클러스터도 조성 중이다. 각각의 특성이나 조성상태는 지역적 여건과 환경적 인프라에 따라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국내 튜닝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인제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조성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튜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인제 클러스터는 완성차 측면에서 조성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과 지자체 매칭펀드 비용을 산정해 최종 투입자금의 조정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떠한 사업보다 발빠르게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한 지상파에서 인제 튜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주요 문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언급이었고 인터뷰 내용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부정적인 언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타당성에 대한 외부 언급은 본 세미나 발표가 처음이었고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해 진행한 사항이었던 만큼 방송을 통해 누군가 복선을 깔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더욱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인제 클러스터는 장점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편중되고 낙후된 강원도 지역을 생각하면 더욱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적 특성이다. 강원도 인제는 현재 서울 잠실에서 자가용으로 약 1시간 50분이 소요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연결망이 더 좋아지면서 1시간 30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수도권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통상의 이점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제 지역에는 인제 스피디움이라는 고성능 레이싱카 경기장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고급 호텔도 함께하고 있어서 가장 적절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로 인제를 중심으로 강원도 각 지역은 오프로드 테스트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워낙 험난한 환경을 가진 테스트 장이 즐비하다. 여기에 도로가 뚫리면서 꼬불꼬불한 가존의 죽은 포장 도로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한 랠리 경기용 도로가 많다. 다른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지역적 천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앞서 언급한 완성차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이다.

인제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교통인프라와 지역적 특성이 어울리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는 타당성이 어디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열악한 지역을 활성화시켜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전국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만큼 전국적인 시설이 활성화돼 고용창출은 물론 우리의 먹거리를 튜닝산업에서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보다는 서로 간에 북돋아주는 바람직한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社說

여야는 너무 계산하지 말라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지역감정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이념과 철학에 관계없이 내 고장 사람을 찍어야 한다는 '묻지마투표' 때문에 더욱 심화돼 왔다. 이처럼 해묵은 지역감정은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완전석권하는 '지역독재'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망국병이라고 불리는 지역감정과 지역독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십년이 흐르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끌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새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방안은 지역감정 해소 또는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안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자는 것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다.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주목을 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지역이나 지역인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당선이 무효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방안들은 지역감정과 지역별 정당독점 구도를 허물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관심을 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채택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여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추진해 볼 가치는 충분해 보인다.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너무 계산하지 말기 바란다.

폰파라치, 근본 취지는 사라지고 직업으로 변질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기자>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폰파라치)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폰파라치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폰파라치를 검색어로 찾아보면 '전문 사냥꾼'들이 어떻게 판매상을 찾아 신고 했는지와 같은 폰파라치의 일상과 이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같이 전담할 동료를 구하고 있는 글이 난무하다.

이처럼 폰파라치 신고의 보상금을 노리고 전국 사냥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폰파라치 행위가 '공익신고'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면서 동시에 '월 3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석이조의 부업거리라 홍보하고 있다.

본래 이 제도는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고 피해는 유통점에 전가되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월에는 최고 보상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배 향상시키면서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직업형 폰파라치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다.

폰파라치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시행부터 폰파라치 신고를 관리하는 것은 이통사이고 벌금은 유통점과 이통사가 분담한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 '왜곡된 시장구조 개선' 보단 과한 포상금 전쟁으로 애꿎은 유통점과 소비자, 그리고 폰파라치들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폰파라치 적발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폰파라치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1만8317건에 이르고 약 130억원을 포상금으로 가져갔다. 여기에는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쟁 판매업체를 신고하는 식의 진흙탕 싸움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통신시장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임금청구 소송, 미성년자도 가능할까

생활 법률

17세 미성년자인 L양이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L양은 전전긍긍하던 중 소액심판청구 소송이란 것을 알게 돼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한다. 주변에서는 나이도 어린데다 사회적 대응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참견하지만, L양은 당당하게 이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르면 일단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동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막자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의 경우 소송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용주에게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해 동법 제68조가 적용돼 독자적으로 자신이 일한 업체에 대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홍원 기자 hong@

인사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정래철 △사업기획팀장 김진석 △경영지원팀장 김세중 △자율등급지원팀장 이종배 △조사관리팀장 이우도 △수도권관리팀장 김범수 △정보기술팀장 최태휘 △법무팀장 김미선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규 보임 <상임이사> △전략경영본부장 부사장 조남용 ◇전보 <본부장> △투자금융본부장·중소중견기업충부지역본부장(겸임) 임양현 <실·부장> △홍보실장 정선기 △영업총괄부장 이무혁 △국내보상채권부장·기업개선실장(겸임) 문홍기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순하리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복숭아처럼 달콤하게
복숭아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